자본을 공유지로 바꾸는 멋진 금융 생활

빈고 ✳ 핸드북

공동체은행
빈고

빈고는 조합원들이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살아가며,
각자의 돈을 모아 공유지를 만들고,
모두 함께 누리고 나누며 서로 돌보는 금융조합입니다.

빈고 조합원의 약속

자본을 위해 노동하지 않고, 자본을 위해 소비하지 않는다.
자본을 위해 저축하지 않고, 자본을 위해 대출하지 않는다.
능력에 따라 출자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한다
기쁘게 연대하고, 재밌게 운영한다
자본에서 공유지로! 은행에서 빈고로!

조합원 이름 _____ 가입일자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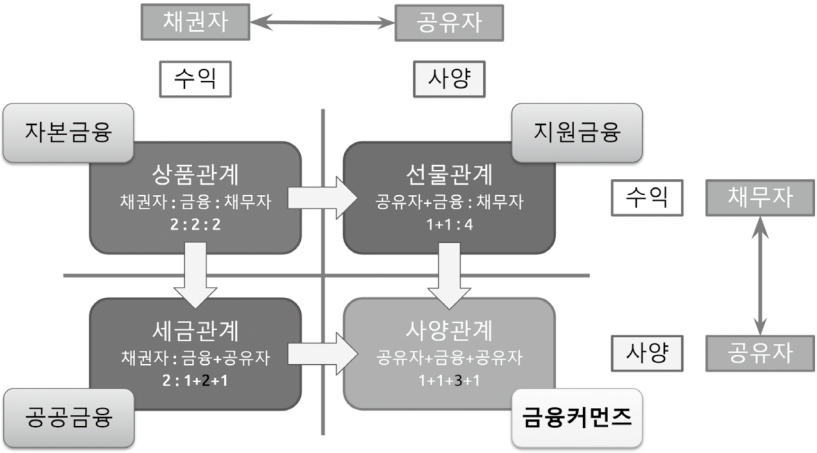
활동 지역 _____ 활동 공동체 _____

BINGO A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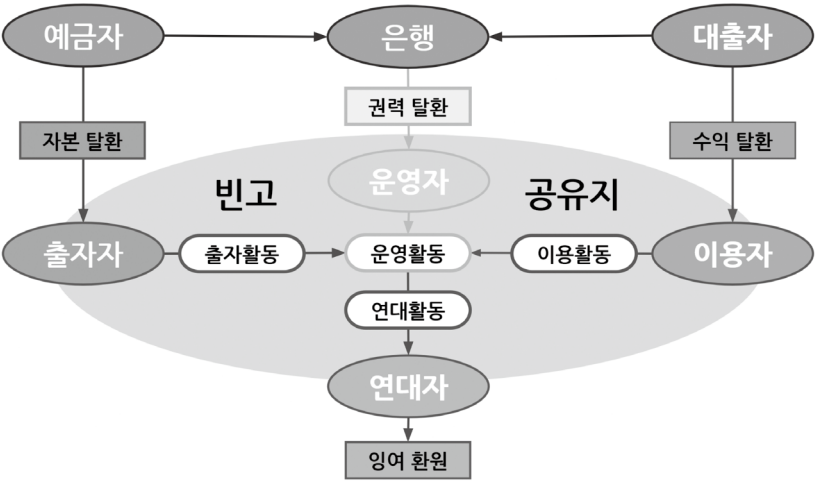
	출자활동	이용활동	연대활동	운영활동	공동체활동
2023 14기					
2024 15기					
2025 16기					
2026 17기					
2027 18기					

빈고 3대 가치와 빈고 로고

빈고의 지향 : 공유와 사양의 금융커먼즈



빈고 4대 활동


예금자
은행
대출자
권력 탈환
자본 탈환
수익 탈환
빈고
운영자
공유지
출자자
출자활동
운영활동
이용활동
이용자
연대활동
연대자
잉여 환원

목차

빈고 선언문 6

빈고 취지문 13

빈고 발자취 17

은행 털이? 은행 옮겨오기! 22

빈고의 가치 : 공유·자치·환대 26

공유화폐 빈의 흐름과 현황 36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었을 때와 빈고에 넣을 때 39

빈고 공유상태표 44

빈고의 활동 46

빈고의 구조 51

빈고 공동체들 54

빈고 이용활동 57

빈고 활동들 60

자주 묻는 질문과 답 66

빈고 14년 일람 72

빈고 정관 82

우리는 돈이 있을 때도 은행으로 가고, 없을 때도 은행으로 간다. 돈이 남는 사람은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은행으로부터 필요한 돈을 대출받을 수도 있다. 은행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서,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편리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다. 은행은 어떤 위기에도 지켜져야 하는 사회 경제 시스템의 흔들림 없는 기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우리는 정반대가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짜여진 은행 시스템 속에서 선택의 여지 없이 종속되어 있다. 우리는 은행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은행 시스템 내부의 닫힌 화폐 흐름이 잠시 우리의 계좌를 거쳐 갈 뿐이다. 우리가 남는 돈을 적절히 보관하고 활용할 다른 방법이 있는가? 우리가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우리의 돈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디에 투자하는지 결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누가 우리의 이자율과 투자처와 신용등급과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가? 우리는 도대체 언제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갈 것을 동의했단 말인가? 다른 대안은 정말 불가능한 건가?

은행이 안정적이라고? 그건 일차적으로는 국가가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가 그럴 수 있는 것은 국가가 국민 즉 우리로부터 세금을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수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수익성이 높다고?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은행이 수익성 높은 거대자본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대자본의 수익성이 높은 것은 거대자본이 노동자와 소비자 즉 우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착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은행이 안정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벌고 있다면, 결국 그것은 모두의 주머니를 턴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자본주의 은행시스템은 우리의 욕망과 삶의 양식마저도 바꾸어 놓기 시작했다. 우리는 어느새 저들의 욕망과 저들의 규칙을 따르게 되었다. 무심코 은행에서 권유한 펀드 상품에 가입하면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돈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고 저절로 불어나길 바라게 되었다. 돈이 어떻게 쓰이고, 누구를 위해 쓰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나에게 돌아오는 이자 또는 투자 수익률뿐이다. 은행의 낮은 이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돈을 빌려 부동산을 매입하고, 투자를 하고, 사업을 벌이면서 레버리지라는 이름의 더 높은 수익률을 얻고자 한다.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수탈당하고 착취당하는 노동자와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예금자, 채권자, 투자자, 채무자, 자산가, 사업가가 되어 간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잃어버리고 그들 중의 하나로, 은행시스템의 지지자 또는 공범자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변해버린 우리의 욕망과 신체는 어떠한 다른 삶도 상상하거나 감행할 수 없게 돼버렸다. 우리는 신용협동조합과 대안 금융운동의 소중한 역사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시도가 초기의 훌륭한 문제의식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기존의 은행과 닮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도 직시하고 있다. 돈이 없을 때는 돈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만,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율배반에 빠지고 만 것이다. 기존의 은행과 똑같은 욕망을 가진 사람들, 더 높은 이율과 수익을 바라는 자산가, 더 낮은 이율과 높은 레버리지를 바라는 대출자, 안정성과 수익성과 최대이윤을 추구하는 은행가, 이들이 만들어내는 은행에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

돈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개입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지배하게 되면 될수록 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진다. 노동자로서 정당하게 수입을 얻고, 소비자로서 올바르게 지출을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현대 금융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개인의 수입과 지출 외에 자산과 부채가 갖는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한 사람의 부는 노동시장에 나가기도 전에 자산과 부채의 차이로 대부분이 결정된다. 집을 사는 것은 더는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을 상속받는 문제, 대출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레버리지를 노리는 투자와 자산운용 전략의 문제다. 우리는 오늘 하루 소비를 위해 노동하는 것만큼이나, 과거의 부채 때문에 노동하고, 미래의 자산을 위해 노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동자로서 단결하고, 소비자로서 연합하는 만큼, 금융의 영역에서도 단결하고 연합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경험과 이론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 노동자는 어떻게 저축해야 하나? 실업자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 소비자는 금융상품을 어떻게 해야 하나? 노동자는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 소비자는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하는가? 우리는 노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우리는 어떻게 미래의 위험에 대비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는 다르게 돈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노동자와 소비자로서 그들과 투쟁해서 돈에 여유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들과 같은 부자가 되고 말 것인가?

우리는 가난하다. 하지만 거대자본에 맞서 미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받는 노동 수입과 원하지도 않는 거짓 욕망을 전방위적으로 강요당하는

우리의 소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겨우 저축한 돈을 투자로 날리고, 보험에 쏟아붓고, 대출이자로 빼앗기는 우리가 어떻게 가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조건에 대해 분노하고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가난하다. 이 척박한 환경에서 공동체와 공유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빚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빼앗기는 사람들, 투쟁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몰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와중에도 먼저 협력하고 먼저 내어주는 착한 사람들이 어떻게 가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수익을 바라지 않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는가? 받을 기대 없이 주고, 주는 티 내지 않고 주고, 받은 것보다 더 크게 나눠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어찌 홀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난하기로 한다. 가난한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이런 우리가 갈가리 찢어져 홀로 하나둘 그들이 되어가지 않고, 언제까지나 우리로서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은행은 어떠한 은행일 수 있을까? 반대로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은행은 어떤 은행이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의 은행이 아닌 우리의 은행을,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을 만들 것인가?

만약 그런 은행이 있다면 그것은 자본에 반하는 반자본은행, 서로 돕고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들의 공동체(共動體), 꼬뮨을 만들어내는 꼬뮨은행(Commune Bank), 은행(銀行)이 아닌 은행(恩行), 가난해서 행복한 빈민들의 금고(貧庫), 모든 것을 나눠주고, 모든 것을 받아 안을 수

있는 비어 있는 금고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공동체은행 빈고는 그런 은행이 되고자 한다. 그리고 빈고를 만들어가는 우리는 공동체은행 빈고의 조합원으로서 출자자=이용자=연대자=운영자로서 함께 살아가고자 한다.

출자자 : 우리는 돈이 돈을 벌고,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금융자본의 질서에 반대하며 자본을 위한 저축을 거부한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돈이 은행과 투자를 통해 금융자본이 되어 행하는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해방되길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이 지배하는 은행에 종속된 예금자나 투자자가 아니라 빈고의 출자자가 되고자 한다. 우리는 노동과 투쟁을 통해 얻은 수입과 현명하고 소박한 지출 계획을 바탕으로, 출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키고자 노력한다.

이용자 : 우리는 빈고의 공유자본을 요긴하게 이용해서 공동체 공간과 공유지를 만들고 가꾸면서 공동체 구성원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공유지와 더 많은 공동체 구성원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 사람이 모은 공유자본을 이용하고 공동체를 꾸리는 일은 수많은 노력과 다짐,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하면서 점점 더 잘 함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채무자나 사업가가 아니라 빈고의 공유자본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이용자가 되고자 한다. 우리는 공유자본의 힘으로 줄어든 월세, 절약한 이자 등의 이용수입은 자신과 모두를 위해 공유한다.

연대자 : 우리가 출자를 통해 자본을 공유자본으로 만들고, 공유자본을 잘 이용한다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잉여금이 발생한다. 우리가 빼앗겼던 돈을 다시 빼앗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멈출 수 없다. 우리는 만인이 빼앗기는 질서에 반대하며, 우리 외부에 여전히 빼앗기는 세상 만인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이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빼앗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셈이다. 우리는 빼앗기던 돈을 다시 빼앗아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원래의 주인인 세상 만인과 모든 생명과 공유할 것이다. 우리는 외부의 또 다른 우리와 연대하는 사람이자, 연대의 상대자이기도 한 연대자가 되고자 한다. 우리는 만인을 수탈하는 자본의 질서에 저항하는 사람들과 기쁘게 함께하며 서로 닮아갈 것이다.

운영자 :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즐겁게 함께할 것이다. 돈의 다른 흐름,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더욱더 많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즐거운 일이다. 적절한 활동비가 적절히 분배되는 것은 빈고의 비용이 아니라 노동이 재밌는 일이 되기를 바라는 목적 중에 하나다. 우리는 그렇게 다른 은행을, 다른 질서를 만들어 내는 운영활동가가 되고자 한다. 우리는 고된 일을 재밌게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재밌는 일을 개발하기 위해 궁리하고, 노동시간을 줄여 나감으로써 일하는 우리의 삶이 재밌어 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공동체은행 빈고의 출자자=이용자=연대자=운영자로서 살아갈 것이다. 우리의 구호는 다음의 두 문장으로 정리된다.

능력에 따라 출자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한다!

기쁘게 연대하고, 재밌게 운영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삶을 닮은 세상이 될 것이다. 조합원들의 노동의 결과가 소비되거나 수탈되지 않고 모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진 돈이 그들만을 위해 쓰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쓰이게 될 것이다. 빼앗기던 월세와

이자와 수익금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누구도 집을 소유하지 않지만, 모두가 집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것이다. 아무도 가지려 하지 않지만, 그래서 모두가 가지게 될 것이다. 한사코 사양하지만 더욱 풍요롭고 요긴하게 돌아올 것이다. 풍요로운 부는 내부에 머물지 않고 외부의 연대자에게 넘쳐흐를 것이다. 우리 외부의 연대자는 곧 우리가 될 것이다. 공유지는 넓어지고,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만큼 다시 공유지가 넓어질 것이다. 모두가 가난하지만 누구도 빼앗기지 않고, 아무도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연금과 보험을 하지 않아도,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자본수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자본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이 위기를 겪어도 아무도 꿈쩍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자본에 의지하지 않는 생산과 소비를 만들어갈 것이다. 돈은 무소불위의 신이 아닌 단순한 도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전혀 다른 돈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미래를 우리는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는 미래를 지금 여기서 살아간다. 우리는 미래에 함께하기 위해 지금 이미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곧 또 한 명의 우리가 될 것이다. 당신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는 미래다.

당신, 또 다른 우리여. 함께 가자! 은행에서 빈고로! 자본에서 꼬뮨으로! 우리가 잃은 것은 오직 자본에 대한 도착이라는 쇠사슬이요, 얻을 것은 전 세계이다. 만국의 빈민들이여 단결하라!

2016.03.05
공동체은행 빈고 6차 총회
조합원 일동

빈마을금고(우주살림협동조합 빈고) 취지문

집은 곧 돈이다. 집을 사러 돈을 벌고, 돈을 벌러 집을 산다. 재산, 소득, 지출, 저축, 대출, 투자, 상속 등 돈과 관련된 생활의 중심에는 집이 있다. 보증금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사는 쪽방과 고시원에서 시작해서, 어떻게든 보증금을 마련한 월세방에서 저축을 통해 보증금을 늘려가다가, 전세집을 구해서 결국 월세에서 해방되고, 저축과 투자를 늘이고 대출을 더해 마침내 내 집 마련, 여기서 더 나아가 부동산 투자를 더 가속화해서 늘어난 자본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 이 과정을 차례 차례 밟아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표준 경로이고, 발전 단계이며 어느 단계까지 왔는가가 그 사람이 속한 현실 계급이다. 우리의 삶은 돈을 벌고 집을 사는 것으로 점철되어 있다.

집은 닫혀있다. 집은 개인의 소유물 중 가장 큰 것이며, 그 내부에 나머지 소유물의 대부분이 들어있다. 그래서 집은 자신만의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집 문은 굳게 닫혀있어야만 한다.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혈연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뿐이다. 자신의 소유물, 자신의 집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가족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인데, 현실에서 가족은 흩어지고 사랑은 흔들린다. 모두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다. 그러나 사람이 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 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모두가 오직 돈을 매개해서만 관계하고 있다는 것, 돈이 우리의 관계를 절단하고 억압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다른 관계를 모두 잃어버렸고 새로 만들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은 답답하고 길이 없어 보이지만, 거꾸로 보면 진실이 보인다. 모두가 집으로 돈을 벌고자 하기 때문에 집을 위해 돈을 벌지 않으면 안된다. 모두가 돈을 집에 투자하기 때문에 집값은 올라가고 집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진다. 모두가 자기 집의 물건을 함께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각각 집에 물건들을 쌓아놓지 않으면 안된다. 서로가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누구에게도 집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도 함께 살 수 없다. 가족 간에라도 계산은 정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은 소멸된다.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나누지 않기 때문에 사랑도 없다. 모두가 집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이웃이 없고 친구도 없다. 각자가 집 문을 굳게 걸어 잠그기 때문에 물건이 필요해서 문을 여는 자는 도둑이 되고 도둑만이 문을 연다.

빈집은 만인에게 열려 있는 집, 만인과 공유하는 집입니다. 빈집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이고, 가난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집입니다. 빈집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물건과 재능을 만인과 공유하며, 그로 인해 모두가 즐겁고 풍요롭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집의 분담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 첫번째 우리가 모여서 같이 살기 때문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두번째 이유는 누군가는 자신이 모은 돈과 그 돈에서 비롯된 수입을 타인과 함께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돈 가진 것이 자랑이 아니고, 돈이 돈을 버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돈에서 비롯된 수입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가 같이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공유의 실천이 빈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진 이 독특하고 기발하고 정의롭고 유쾌하기 그지없는 살림살이의 방법을 자랑해도 좋을 것입니다. 집 문턱을 넘어서 마을로,

세상으로 넓혀가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신이 살 집을 구하기 위해 삶을 희생하고 노동을 착취당하면서 모으지 않으면 안 되었던 돈, 원하지도 않는 불필요한 소비로 하염없이 빼앗기고 말았던 돈, 부동산 주식 펀드 등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며 대부분은 손해로 귀결되는 투자에 사용되던 돈, 불안하고 위험한 미래를 홀로 외롭게 감당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돈, 은행을 통해서 환경과 생명과 노동을 파괴하는 돈의 순환에 말려들어가던 우리의 돈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진정 우리를 위해서 이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노동이 만들어 낸 돈의 가치를 존중하지만, 그 돈이 다시 돈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것으로 보이는 것의 실상은 돈이 만인을 억누르고 만인이 생산한 것을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돈을 벌어 오는 것에 현혹되는 것은, 그 돈이 사실 우리가 빼앗겼던 수많은 것의 단지 일부만을 돌려주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돈이 만들어 낸 돈을 그 원래의 주인들인 세상 만인과 공유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는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과 공유할 때 더욱 빛을 발하며, 미래를 살아갈 모든 사람들도 함께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돈은 우리를 옥죄고 억누르는 지금의 위치에서 내려와, 원래의 위치 즉 우리의 삶을 위한 단순하고 유용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적게 쓰고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오히려 돈을 적게 써야만 행복하고도 올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게 벌어도 충분하고, 적게 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갉아먹고, 세상을 망치는 일들을 거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 온 세상이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기발한 놀이이자 창조적 예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성과와 작품을 그 자체로 만인과 함께 즐길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돈도 함께 만들어 진다면, 조금씩 꾸준히 모아서 그 돈을 마을 사람들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사람들과 모든 생명들과 공유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빈집은 비어있는 집, 언제나 비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더라도 그 다음 사람을 위한 빈 자리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빈집을 유지한다는 것은 빈집을 확장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빈집은 계속 늘어나야 합니다. 빈집은 세상 모든 사람들과 세상 모든 생명들을 다 받아 안은 후에야, 빈집이 온 세상이 되고서야 확장을 멈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빈마을금고는 사람들의 힘을 모으고 나누고 주고 받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010.06.27
우주살림협동조합 빈고 창립총회
참가자 일동

2008년 **02월 21일** 해방촌 게스츠하우스 빈집 시작 빈집들이
11월 윗집 시작

2009년 **02월** 옆집 시작
03월 가파른집 시작
03월 빈마을회의 시작
05월 빈마을금고 논의 시작
10월 빈농집 시작

2010년 **02월** 앞집 시작
05월 빈마을금고 창립준비위원회 시작
06월 27일 우주살림협동조합 빈고 창립 총회
10월 빈가게 공동체 시작
11월 하늘집 공동체 시작

2011년 **03월** 빈고 1차 총회
05월 공부집 공동체 시작
05월 팔당집 공동체 시작

2012년 **01월** 만행 해방촌 행간 공동체 시작
02월 빈가게 → 까페해방촌 시작
02월 해방채, 계단집 공동체 시작
03월 빈고 2차 총회.
05월 낭만집. 작은집 공동체 시작

08월 청주 공룡 공동체 시작

08월 살림집 공동체 시작

11월 해방촌연구소, 구름집 공동체 시작

11월 마실집, 옥상집 시작

12월 수유너머R 해방촌 공동체 시작

2013년 **01월** 빈고 총회준비위원회 활동

03월 빈고 3차 총회

07월 해방촌 민박 시작

09월 마실집 공동체 시작 12월 공룡 마을까페 이따 시작

2014년 **02월** 해방촌 연구소 + 해방촌 민박 → 사랑채 시작

02월 부천 모두들 공동체 시작

02월 부산 잘자리 공동체 시작

02월 마루집 공동체 시작

03월 빈고 4차 총회

03월 '우주살림협동조합 빈고' → '공동체은행 빈고 명칭' 변경 확정

11월 인천 비행 공동체 시작

2015년 **03월** 빈고 5차 총회

03월 빈고 건강보험계 시작

03월 빈고 공동체 활동가 전체회의 시작

03월 빈컴퓨터 가게 공동체 시작

07월 온지곤지 공동체 시작

2016년 **02월** 까페해방촌 빈가게 정리. '해방촌이야기' 시작
03월 빈고 6차 총회
08월 명륜동 쓰리룸 공동체 시작
10월 빈땅 프로젝트 시작
10월 홍성 홍부집 공동체 시작
10월 홈보야지 공동체 시작
10월 부산 잘자리2호 공동체 시작
11월 노는집 공동체 시작

2017년 **03월** 빈고 7차 총회
04월 빈땅조합 창립총회
04월 홍성 빈땅 출자
07월 온라인 출자 조회 서비스 개시

2018년 **02월** 대구 그린집 결합
03월 빈고 8차 총회
05월 인권교육센터 들 꿀잠 사무실 시작
07월 전남 해남 미세마을 결합
09월 서울 은평구 골목쟁이네 시작
10월 서울은평구빈집평집시작
10월 서울 서대문구 평화살롱 레드북스 공동체 결합
12월 홍성 키키 완공

2019년 **02월** 빈고 9차 총회
04월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무실 시작
04월 강릉 내일상회 공간 시작

08월 서울마포구망집시작

09월 서울 은평구 웬자족 시작

11월 서울 은평구 단편집 시작

2020년 **02월** 빈고 10차 총회

03월 서울 경의선공유지 연대가게 시작

05월 청주 공룡 게스트하우스 시작

05월 서울 경의선공유지 연대가게2 시작

08월 서울 에밀리,숲 시작

08월 서울 망집2 시작

10월 순천 여덟집 시작

11월 홍성 스튜디오402 시작

2021년 **02월** 빈고 11차 총회

03월 빈고 갈등탕비실 시작

03월 빈고 보이는라디오 시작

05월 강릉 내일상회 강릉빈땅 시작

2022년 **01월** 빈고 12차 총회

05월 서울 영등포구 이층집 시작

05월 양평 두물머리 언덕집 시작

07월 연구자의집 R커먼즈 시작

2023년 **01월** 빈고 13차 총회

07월 읽기의집 시작

> "전설적인 은행 강도 윌리 서튼은 왜 은행을 털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 '거기에 돈이 있으니까요'라고 대답했다고 하지만,
> 그건 틀린 생각이다.
> 은행에는 돈이 '없으니까' 괜히 힘들게 은행을 털고 어찌할 것이 없다.
> 제 말씀 믿어주시라. 은행은 털 가치가 없는 물건이다.
> 정말 은행을 털고 싶다면, 내 동료 빌 블랙이 했던 말을 따르도록.
> 은행을 하나 소유하면 된다."
>
> - 랜덜 레이

> "은행을 설립하는 것에 비하면, 은행을 터는 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
> - 베르톨트 브레히트

자본주의가 문제고, 은행이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은행이 문제라면 은행을 털면 되지 않을까? 물론 은행털이는 불법이다. 그렇다면 은행을 접수하는 것은 어떨까? 물론 권력을 장악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두가지 모두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성공하더라도 실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은행에는 금고에 머무르고 있는 약간의 금액을 뺀다면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예금자가 저축한 돈은 이미 대출자를 거쳐 다른 곳으로 가 있다. 은행에 있는 것은 예금자가 예금했다는 증서들, 대출자가 대출했다는 증서들 뿐이다. 사실 문서 자체도 없다. 모든 것은 디지털화되어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 은행은 사실상 무수한 거래와 계약들의 다발이며, 그 계약들은 단지 훔치거나 몰수할 수 없다. 만약에 그런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결국 은행 자체가 아니라 은행에 예금한 수많은 개인들의 것을 훔치는 것이 될 뿐이다.

그렇다면 은행은 건드릴 수 없는 철옹성인가? 그렇지는 않다. 은행이 계약의 집적이라면 계약 자체를 변경하면 어떨까? 우리가 새로운 은행을 만들고 새로운 계약을 만들어 간다. 그리고 기존의 은행에 있던 계약들을 옮겨온다. 다시 말해 은행을 조금씩 옮겨오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아주 쉽고 확실하며 완전히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이다. 다만 은행을 옮겨와서 똑같은 계약을 반복할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 우리는 자본의 은행과 전혀 다른 은행을 만들고 다르게 운영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롭고 재밌고 올바른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네가지 다른 활동을 수행할 네가지 주체가 필요하다.

첫 번째, 예금을 옮겨온다. 예금을 옮겨오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다. 계좌이체 한 번이면 끝이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은행은 안전성을 기본으로 한다. 누구든 자신이 가진 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불안한 상태를 견디기는 어렵다. 은행의 안전성은 국가가 보장한다. 그렇다면 국가의 안정성은 누가 보장하는가? 국가는 국민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다면, 결국 우리의 돈을 맡길 은행의 안정성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보장한다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세금을 내면서 은행의 안정성을 지키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꼭 국가여야 하는가? 우리가 스스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빈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투명한 재정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위험에도 대비하고 있다. 물론 사람들은 수시로 거래은행을 바꾸고 투자종목을 바꾼다. 이유는 당연히 이자소득, 투자소득, 자본소득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그런 선택은 자본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기여한다. 그런데 그 효율은 결국 자본이 우리를 착취하는 효율을 말한다.

우리가 자본주의에 반대한다면, 반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돈이 어디선가 누군가를 착취해서 가져온 자본소득을 사양하는 것이다.

두 번째, 대출을 옮겨온다. 우선 소비를 위한 대출과 투자를 위한 대출을 구분하자. 소비를 위한 대출은 현재 충분한 소득이 없는 사람을 위해 기다려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아무런 자본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율을 높게 설정할 이유가 없다. 만약 미래에도 충분한 소득이 있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사회복지 지원이 필요하지 대출은 의미가 없다. 투자를 위한 대출은 성격이 좀 다르다. 이 경우 대출금은 자산으로 전환되고 자산은 자산수익을 창출한다. 투자를 위한 대출은 결국 은행에 있는 돈을 누구를 통해 어떤 자산으로 전환할 것인가, 발생한 자산수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것을 바로 은행과 투자금융이 결정하고 있다. 우리가 대출을 옮겨온다는 것은 단지 대출금 뿐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할 자산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 된다. 직접적으로 은행의 수입원인 이자수입이 따라서 옮겨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대출의 조건과 이자수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역시 이제 우리가 정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이사회와 경영진을 옮겨온다. 사실 예금과 대출을 옮겨온다면 은행은 다 넘어온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예금을 통해서 자산을 확보하고, 대출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얻고 있다. 이제 이 은행의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이사회를 구성하면 된다. 그러나 저들과 똑같은 이사회를 구성한다면 우리가 애써 은행을 옮겨온다고 해도 결국은 똑같은 은행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은행을 원하는가? 여기에 우리는 명확한 답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은행의 이사는 다름 아닌 자본이다. 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본의 은행은 자본수익의 추구라는

단순 명확한 단 하나의 공동의 목적, 유일한 동력으로 운영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은행은 어떤 원칙으로 예금과 대출을 운영할 것인가? 자본의 은행이 문제였다면 반대로 해보면 어떨까? 반자본의 은행으로. 자본수익에 혈안이 된 자본에 다름없는 이사들을 몰아내고 자본수익을 부끄러워하고 사양할 줄 아는 사람들로 이사진을 구성하자.

네 번째, 주주를 옮겨온다. 은행은 주주를 위해서 일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한 은행을 만들 것인가? 주주의 목적은 자본수익이다. 은행은 주주를 위해 전체 사회에서 자본수익을 추출하는 기계다. 자본수익을 추출당하는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자본에게 빼앗기는 것을 거부하고, 동시에 자본의 힘으로 빼앗는 것 또한 거부한다. 우리는 예금으로서 자본수익을 얻는 것을 거부하고, 대출로서 자본수익을 빼앗기는 것을 거부한다. 이 둘의 결합으로 우리는 자본수익이 공유지로 전환되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우리는 이 공유지를 누리지만, 또한 우리 바깥에 여전히 자본에 의해 수탈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릴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예금자도 대출자도 은행가도 은행털이도 아니다. 우리는 출자자이자 이용자이고 연대자이자 운영자인 빈고의 조합원이다.

자본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자본은 자본이기를 그친다. 화폐는 여전히 남는 곳에서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고 또 돌아오지만 수탈하는 사람도 수탈당하는 사람도 사라진다. 화폐는 생산적인 자산으로 전환되고 그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된다. 그 화폐의 이름은 이제 자본이 아니라 공유지, 커먼즈로 불리는 것이 어울릴 것이다. 자본을 커먼즈로 전환하고 커먼즈를 누리다 커먼즈를 남기고 사라질 우리. 우리들의 이름은 공유자, 커머너다.

빈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생명이 함께 누리고 가꾸며 살아가는 공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유지는 모든 곳에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공유지를 망치는 독점과 수탈과 차별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은 자본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경쟁 속에 공유지를 빠른 속도로 침식하고 착취합니다. 국가는 권력을 기반으로 공유지를 지배하고 수탈합니다. 가족은 내부에서는 공유하지만, 외부에 대해서는 폐쇄한 채 타인의 접근을 배제합니다. 자본=국가=가족은 분리되어 서로 대립할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고 공유지를 망치고 있습니다.

자본=국가=가족 : 공유지를 망치는 시스템

예를 들어 우리가 살기 위에서 집을 구하는 방식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돈을 벌어서 계약을 하거나, 가족에게 지원을 받던지, 그도 아니면 국가의 복지에 기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세가지 방식은 겹쳐져서 동시에

작용합니다. 실제로 집을 살 때는 자본을 모으고 국가의 정책을 이용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집을 사게 됩니다. 이렇게라도 살 수 있다면 일단은 다행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본이 없고, 국가가 없고, 가족도 없는 사람들이 그저 살아갈 수 있는 공유지는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이 시스템을 넘어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본의 횡포를 국가가 제어하고, 국가의 한계를 자본이 보완하고, 국가와 자본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족에게 떠넘기고, 가족의 문제를 국가와 자본에 위임하는 처방들로는 이 시스템 내부에 갇혀있을 뿐 넘어설 수 없습니다.

자본=국가=가족이 그토록 강고한 이유는 이 세가지가 모두 소유에 기반한 서로 다른 교환양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은 경쟁을 통한 상품교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세금을 걷고 재분배를 하는 세금교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선물하고 답례하는 선물교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교환양식은 서로 분명히 구분되고, 어느 한 교환양식이 우세할 수는 있지만 하나로 환원되지는 않습니다.

상품교환은 서로 상대방의 것을 빼앗으려는 경쟁에서 비롯됩니다. 반복적인 경쟁으로 인해서 어떤 균형을 이룰수는 있지만, 틈이 생기는대로 경쟁은 재현되고 힘이 센 쪽, 즉 더 큰 자본이 승리해서 독점과 착취가 이뤄지고 빈부격차는 지속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세금교환은 권력을 기반으로 모두에게서 세금을 걷고, 걷은 세금으로 재분배를 합니다. 빼앗는 자는 지속적인 수탈을 위해서라도 재분배를 하고, 빼앗기는 자는 지배를 용인하고 의존합니다. 자본의 독점으로 인한 지나친 빈부격차는 누구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에, 자본의 폐해를 제어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서 가난한 국민을 위해서 더 나은 복지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지배는 강화되고, 국가기구는 비대해집니다. 국가가 복지를 하지 않을 수 없더라도, 국가의 본질은 폭력과

수탈, 군대와 조세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선물교환은 위 두 가지 교환과는 다르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선물을 하고 상대방은 선물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답례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답례가 이루어지고, 선물을 주는 쪽이 지속할 상황이 된다면 이 관계는 지속되고 가족이 형성됩니다. 직접적인 답례의 형태가 아니라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선물이 순환하는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처음으로 되돌아와서 다음 번 선물이 시작될 수 있다면 관계는 지속되고, 선물의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선물은 자연스럽게 차별적이고 폐쇄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선물이 이뤄지는 순간 선물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는 권력관계가 형성됩니다. 또한 쉽게 확장될 수 없고, 외부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경쟁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가족/공동체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자본과 국가 시스템의 하위 단위로 전락하고 맙니다.

네번째 교환양식 : 사양

우리는 네 번째 교환이 존재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선물교환과 마찬가지로 주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을 받지 않고 사양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것은 선물을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받을 수 있는가? 선물이 가능한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선물을 받는 쪽이 사양한다면 선물은 원래의 제안자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제안자가 선물을 되돌려받는다면 교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제안자 역시 이미 선물한 것을 되돌려받기를 사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쪽이 모두 사양하면서, 선물은 둘 사이 어딘가에 머무르게 됩니다. 양쪽의 사양이 계속되는 한 이 사양의 관계는 지속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이전의 세 가지 교환양식과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이 교환양식을 사양교환이라고 하고, 이 물건은 선물이라기보다는 공유물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당해보입니다. 아직 물건을 주고 받은 사람은 없으니 교환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아직 교환 중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공유물의 처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유물은 각자의 손을 떠났지만, 누구의 손도 떠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사양하는 한 자신도 사양하며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상대방이 사양은 하고 있지만, 사실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제공하는 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사양하기를 그만둔다면, 공유물은 그 사람에게 돌아가고, 이는 결과적으로 선물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유물은 그 독특한 위상으로 인해서 수많은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공유물은 미래를 위해 남겨둘 수도 있고, 외부의 타인에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 결정은 사양하고 있는 두 사람의 공동의 결정에 남아 있습니다. 모두가 사양하고 있다면, 누가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어떤 자원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지를 먼저 판단하는 돌봄이 필수적입니다.

앞서 자본=국가=가족을 구성하는 세가지 교환양식에서는 공유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환양식에서는 양 쪽 또는 어느 한 쪽은 소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빼앗으려 경쟁하는 자본관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빼앗는 것을 동기로 하는 국가와 선물받기를 동기로 하는 가족에서는 공유물의 자리가 없습니다. 공유는 양쪽 모두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소유하는 것을 사양하는 긴장관계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공유는 개인이 아니라 개인들의 집합이 소유하는 공동체소유와는 다른 것입니다. 가족/공동체의 소유는 선물교환양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더 강한 소유형태일 수 있습니다. 사양교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유상태는 그 자체로 열려 있습니다. 외부인이 들어와서 공유물을 갖는다 해도 사양교환은 유지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두 사람의 사양은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의 사람 역시 사양한다면 공유물은 계속 유지되고, 여러 사람들로 이뤄진 이 시스템은 나름 안정적이고 확장성있게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사양교환에서는 누구도 이익을 볼 수 없습니다. 그저 공유상태에 있을 뿐입니다. 양 측이 모두 사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한 공유물은 누구에게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누구도 이익을 취하지 않지만, 만약 어느 한쪽이 위기에 처했거나 너무 약해져서 사양을 할수없다면공유물은그사람에게힘이될수있습니다. 이것은 힘이 강한 쪽이 항상 더 많이 가져가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자본의 원리와는 정반대로 약한 쪽이 항상 더 갖게 되고 회복되어 다시 사양을 할 수 있는 균형상태를 되찾습니다. 누구도 이익을 볼 수 없지만 누구도 빼앗기지 않고 홀로 위험에 빠지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교환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먼즈 : 자본=국가=가족을 넘어서

이렇게 사양교환으로 형성되는 공유자들의 공동체와 공유물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시스템을 공유자원체계 또는 넓은의미를 갖는 단어로서 공유지 또는 커먼즈(commons) 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양교환양식에 기반한 커먼즈는 국가=자본=가족과는 전혀 다른 질서를 갖는 시스템입니다. 자본의 세상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분명히 도처에서 수시로 출현합니다. 볏단을 몰래 서로 가져다주다 보니 항상 그대로 남았다는 의좋은 형제의 전통적인 이야기. 형편이 어려운 가족들 사이에서 서로 용돈을 주겠다고 다투다가 다른 식구에게 던져버리고 가는 관계. 서로 밥값을 계산하겠다고 다투고, 지면 그 다음번에는 기필코 사겠다고 다투는 관계. 좋은 것을 서로 갖지 않겠다고 투닥거리는 연인들. 이자 안받고 목돈을 빌려주는 친구와 갚으면서 기어코 이자를 주겠다는 친구가 다투다가 술값으로 다 써버리는 관계. 룸메이트와 보증금을 공유하려는 친구와 기어코 보증금에 대한 월세를 돌려주려고

다투는 룸메이트. 이자나 배당 또는 원금 반환에 대한 보장 없이도 돈을 맡기겠다는 출자자와 한사코 출자자가 손해보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조합원. 공유자원이니 필요할 때 언제든 쓰라고 공급하고 어려우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합원과 공유자원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 이용금을 반환하고, 은행에 뺏길 뻔했던 돈을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하겠다는 이용자. 잉여금을 소모해버리지 말고 다음 공동체와 다음 집을 위한 보증금으로 남겨두자는 조합원들. 잉여금은 우리 내부가 아니라 새로 우리를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외부의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합원들. 아픈 사람들 병원비는 챙겨줘야한다고 생각해서 회비를 자발적으로 내지만 정작 자신의 병원비는 굳이 챙겨 신청하지 않는 건강계원들. 그걸 또 굳이 찾아서 신청하라고 하는 다른 건강계원들. 집이나 땅을 소유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공유지를 한 평씩 사서 늘리는 빈땅지주들. 공유지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며 자신의 몫을 다하고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공동체 구성원들. 이러한 관계가 출현했다면 반드시 꼭 잡고 놓치 않기를 권합니다. 직접적인 이익은 되지 않더라도, 결코 해가 되지는 않고, 굳이 내것을 챙기지 않더라도 상대가 돌봐 줄 수 있는 더 없이 소중한 관계임에 틀림없습니다. 오해와 위기가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평생을 두고 지켜가야 할 관계일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들이 지속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온 것이 다름아닌 빈고의 역사가 아닌가 합니다.

커먼즈는 아직 미약할지언정 분명한 교환양식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쉽게 소멸되지 않을 것이고 끈질기게 조금씩 확장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국가=자본=가족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가=자본=가족을 넘어서는 길은 커먼즈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는 것, 국가, 자본, 가족의 영역을 커먼즈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 아니면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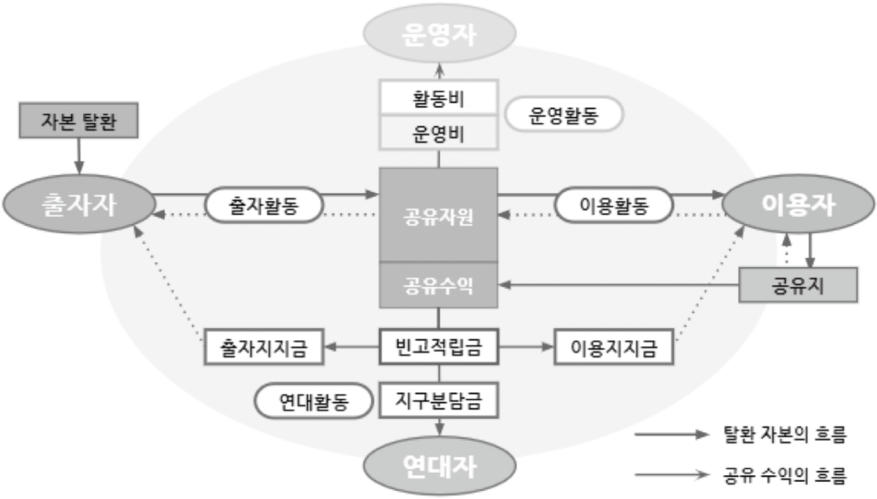
반대로 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 자본, 가족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면 커먼즈의 가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은 서로 갖기 위한 경쟁으로 인해 독점과 착취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넘어서는 방식은 소유를 위한 경쟁을 넘어 공유를 위한 경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지배와 수탈로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재분배로서 불평등을 해소할 수도 사람들의 최소한의 삶을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수탈을 멈추고 권력을 사양해서, 국민들이 지배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치적인 권력을 만들어내고 공유지를 함께 운영하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가족과 공동체는 소중한 선물의 가치를 갖고 있지만, 자신들이 서 있는 기반과 외부를 끊임없이 바라보지 않는다면 의도하지 않아도 폐쇄되고 고립될 운명입니다. 선물을 사양해서 외부로 돌려 연대하는 것, 외부의 차별받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빈고의 가치는 자본을 넘어선 공유, 국가를 넘어선 자치, 가족을 넘어선 환대 세가지로 정리하곤 합니다. 사실 공유, 자치, 환대의 세 가지는 '해방촌 게스츠하우스 빈집'의 조건에서 시작했습니다. 집 보증금을 위해 같이 공유하기, 누구나 집주인으로서 회의를 통해 자치하기,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는 환대하기가 빈집을 다른 집들과 구분하는 요소들이었습니다. 빈집에서 시작한 빈고는 금융조직으로서 다른 방식으로서 이 가치를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빈고의 공동체들도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공유, 자치, 환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의 영역은 자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자본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은 커먼즈가 소규모로 머무르지 않고 확대될 수 있는 공유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빈고의 생각이고, 그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다양한 공유자원을 운영하는 다양한 공유자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커먼즈의 체계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한 모든 자원은 화폐, 자본으로 환원되고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금융은 그 자체로 공유된 상태의 표현입니다. 누군가가 예금을 하면 내 것이지만 활용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는다면 지금은 내가 쓰지만 언젠가는 돌려줘야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 자본수익을 추출하는 시스템 속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자본수익을 서로 빼앗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자본이 착취한 자본수익을 부끄러워하고, 나는 갖지 않겠다고 하는 사양의 경쟁의 시스템이 있다면 어떨까요? 자본수익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자본, 자본수익을 수탈하고 재분배하는 국가, 자본수익을 나의 식구와 공동체에게 주기 위해 더 열심히 경쟁하는 가족. 모두가 자본수익을 추구하는 금융이 아니라 모두가 자본수익을 부끄러워하고 사양하는 금융이 있다면 어떨까요? 공유지를 위해 출자하고, 공유지를 만들어 수익을 공유하고,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기쁘게 연대하는 금융의 커먼즈 또는 커먼즈의 금융.

자본=국가=가족을 넘어서는 공유/자치/환대의 가치로 사양교환에 기반한 커먼즈를 확대하는 것이 빈고의 자리입니다.



탈환 자본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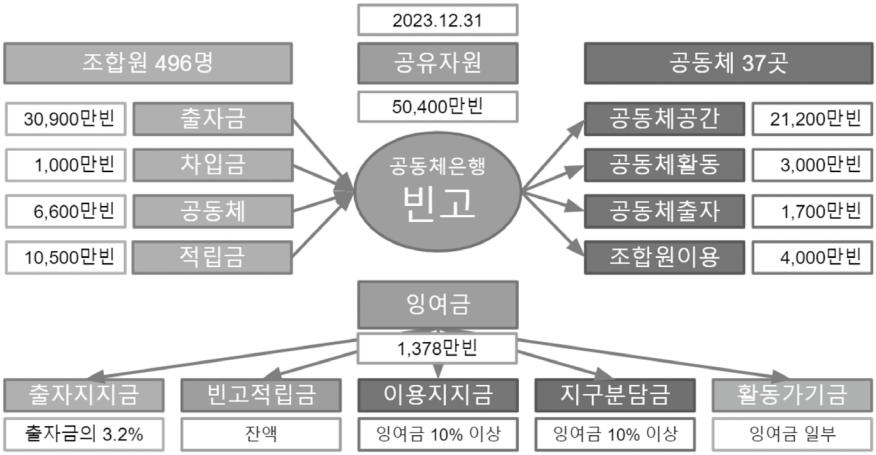
우리의 화폐는 우리의 뜻과는 무관하게, 은행을 통해서 자본이 되어 세상을 망치고 있습니다. 출자자가 은행이나 주식 부동산 등 자본에 포섭된 돈을 탈환해와서 출자활동을 합니다. 모든 출자자들의 탈환한 돈이 출자활동을 통해서 공유자원이 됩니다. 이용자가 공유자원을 이용해서 공유지를 만듭니다. 이용활동이 종료된다면 이용금은 공유자원으로 반환되고 다른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출자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출자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다시 출자활동을 하면 됩니다.

공유 수익의 흐름

공유지가 잘 운영된다면 기존 자본을 대체한 결과로 공유 수익이 발생합니다. 공유 수익은 빈고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활동에 일부 사용되고 잉여금으로 남습니다. 잉여금은 총회 결정에 따라 출자자, 이용자, 연대자, 운영자에게 분배되고 적립됩니다. 출자자와 이용자 모두 수익을 사양하지만, 활동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각각 출자지지금과 이용지지금을 적립합니다. 출자지지금과 이용지지금은 조합원 탈퇴나 공동체 종료 시에 지급됩니다. 빈고 외부의 연대자에게 분배되는 지구분담금은 조합원들의 연대활동에 사용됩니다. 이용지지금의 일부는 공동체기금으로 적립되어 공동체의 위기와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 사용됩니다. 남은 금액은 빈고적립금으로 모아두고 빈고의 손실과 위기에 대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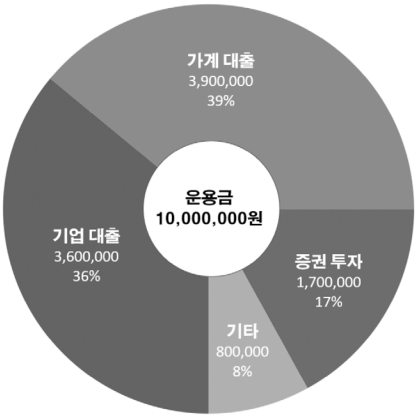
2023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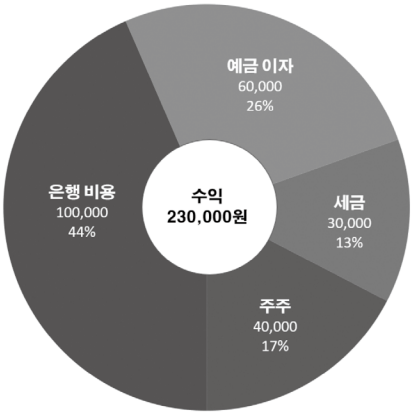
빈고 조합원 496명이 모은 출자금은 3억 900만 빈입니다. 공동체가 모은 돈은 6,600만 빈, 그동안 누적된 적립금이 1억 500만 빈, 그리고 빈고가 우호적인 차입금을 빌려온 금액이 1,000만 빈입니다. 이렇게 모인 공유자원의 총합계 약 5억 400만 빈입니다. 이렇게 모인 공유자원은 공동체공간에 2억 1,200만 빈, 공동체활동과 공동체 출자에 4,700만 빈, 그리고 조합원들이 4,000만빈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예치하고 있습니다. 잉여금의 분배원칙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출자자에게 적립하는 출자지지금은 신협예금 이율 이하로만 적립하는데 작년에는 3.2% 였습니다. 이용지지금과 지구분담금은 잉여금의 10%를 최소 적립해 왔습니다. 잉여금이 많을 경우는 활동가 보너스의 성격으로 활동가기금을 적립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는 빈고적립금으로 적립하는데, 잉여금의 20% 정도는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3.12.31
조합원 496명
공유자원
50,400만빈
공동체 37곳
30,900만빈
출자금
1,000만빈
차입금
6,600만빈
공동체
10,500만빈
적립금
공동체은행
빈고
공동체공간
21,200만빈
공동체활동
3,000만빈
공동체출자
1,700만빈
조합원이용
4,000만빈
잉여금
1,378만빈
출자지지금
출자금의 3.2%
빈고적립금
잔액
이용지지금
잉여금 10% 이상
지구분담금
잉여금 10% 이상
활동가기금
잉여금 일부

1.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었을 때

: (국민은행의 2020년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대략적인 추산입니다)





은행은 1,000만 원을 이렇게 운용합니다.

1. 각종 기업에 대출하는 금액 : 360만 원
2.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에게 대출하는 금액 : 390만 원
3. 주식/선물/국채 등 증권에 투자하는 금액 : 170만 원
4. 예치금, 대손충당금 등 기타 : 80만 원

은행은 맡은 돈 1,000만 원을 한 해 동안 운용하며 평균 23만 원의 수익을 올립니다. 수익 23만 원은 이렇게 분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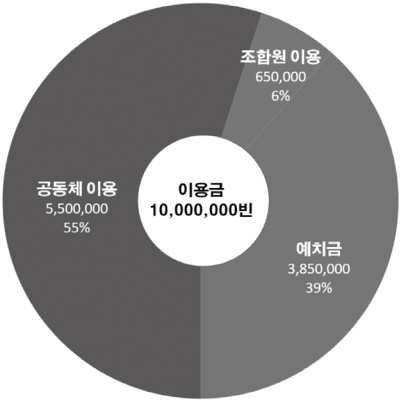
1. 인건비, 영업비 등 비용 : 10만 원
2. 예금이자로 지급 : 7만 원
   (7만 원 중 소득세, 지방소득세로 1만 원은 세금으로 납부됩니다.)
3. 법인세로 내는 돈 : 2만 원
4. 순이익 : 4만 원이 은행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분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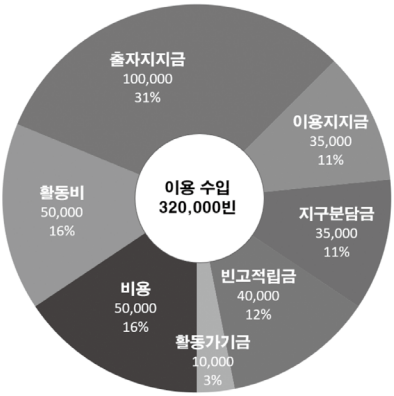
정리하자면,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그 중 920만 원이 기업과 개인에게 대출되거나 증권투자 등으로 운용되고, 그걸로 은행은 매년 23만 원을 벌어들입니다. 그 중 6만 원은 예금자가 이자로 돌려받고, 10만 원은 은행 임직원의 인건비와 은행 운용비 등 비용으로 나가고, 3만 원은 국가에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4만 원은 은행의 주주들에게 나눠줍니다.

우리가 1,000만 원을 넣을 때마다 매년 은행 임직원들과 영업점 건물주에게 10만 원을, 국가에 세금 3만 원을, 은행 주주들에게 4만 원씩을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2. 1,000만 빈을 빈고에 넣었을 때

: (공동체은행 빈고의 2020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빈고는 1,000만 빈을 이렇게 이용합니다.

1. 공동체 공간과 활동에 이용 : 550만 빈

   이 중 대부분은 공동체 공간의 전, 월세 보증금으로 이용되거나 토지와 건물을 공유지로 매입하는 데 이용됩니다.

2. 조합원 이용 : 65만 빈

   조합원들의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는 금액으로서 채무전환, 생활비, 여행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빈고에 맡긴 돈 1,000만 빈으로 한 해 동안 평균 32만 빈의 수입이 만들어집니다. 수입 32만 빈 중 10만 빈은 활동비 등 비용으로 사용되고, 남은 잉여금 22만 빈이 아래와 같이 분배됩니다.

1. 출자지지금 : 10만 빈

   기존 은행의 예금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출자자들이 은행에 예금하는 대신 빈고에 출자할 때 손해는 보지 않게 하자는 취지로, 기존 은행의 예금

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다만 빈고는 기본적으로 돈이 돈을 버는 자본의 논리에 반대하므로 출자지지금은 빈고 내부에 적립되었다가 빈고에 요청하는 경우나 탈퇴하는 경우에 반환됩니다.

2. 지구분담금 : 3만 5천 빈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과 함께 나누기 위해 배당하는 금액으로, 빈고의 존립목적에 따라 빈고가 탈환한 자본수익을 금융자본에게 빼앗겼던 원래의 주인인 만인에게 돌려주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조합원이 연대활동과 함께 지구분담금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3. 이용지지금 : 3만 5천 빈

이용자의 이용활동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이용자에게 배당하고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조합원 탈퇴 또는 공동체 해체 시에 반환됩니다.

4. 빈고적립금 : 4만 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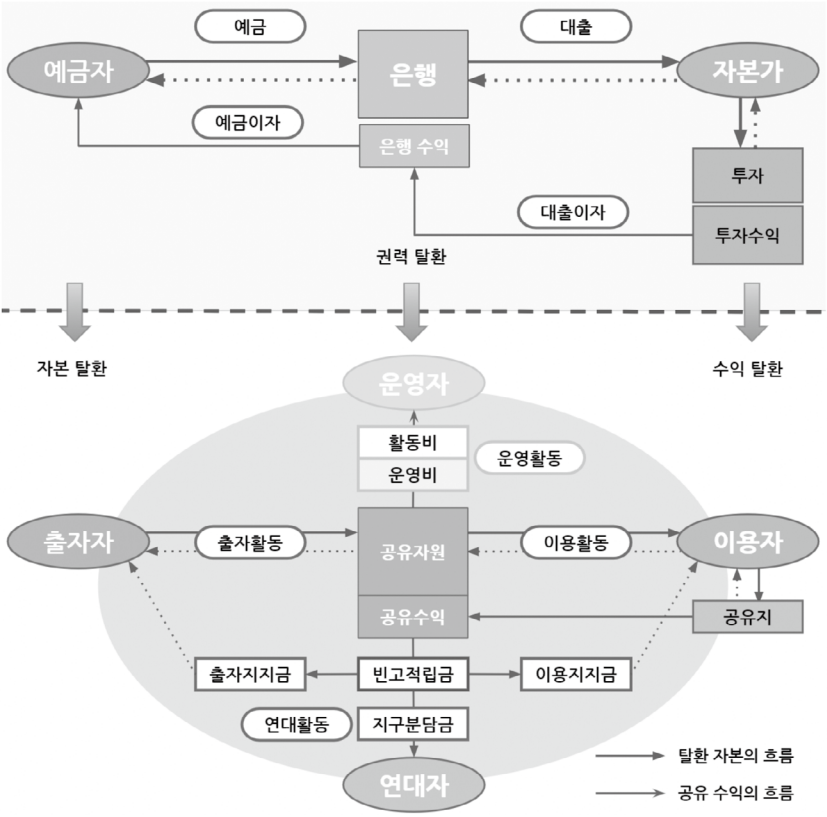
빈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빈고 내부에 적립하는 금액으로, 출자금처럼 빈고 내부에서 순환되다가 빈고의 손실이 있을 경우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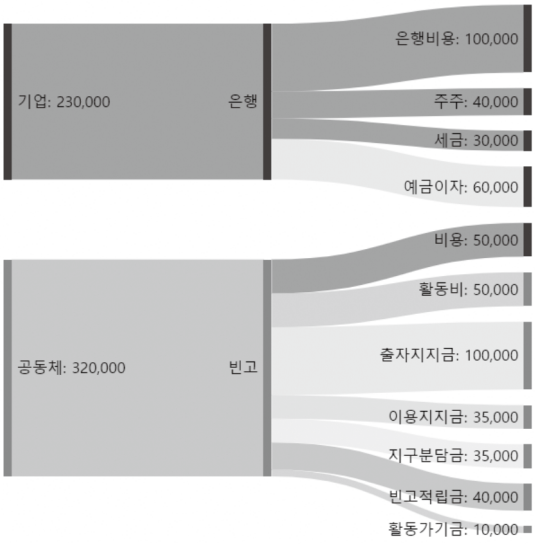
5. 활동가기금 : 1만 빈

빈고의 실무에 참여하는 활동가를 위해 배당하는 금액으로, 주로 활동가의 퇴직금으로 활용됩니다.

정리하자면, 1,000만 빈을 빈고에 넣어두면 그 중 620만 빈을 빈고 공동체와 조합원들이 이용하고 그로부터 이용수입이 매년 32만 빈 씩 생깁니다. 그 중 활동비 등 비용으로 10만 빈을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 22만 빈 중 10만 빈은 출자자에게 출자지지금으로, 3만 5천 빈은 이용자에게 이용지지금으로, 3만 5천 빈은 빈고의 바깥에 연대하는 지구분담금으로, 4만 빈은 빈고 내부에 빈고 적립금으로, 그리고 1만 빈은 빈고의 운영자들을 위한 활동가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이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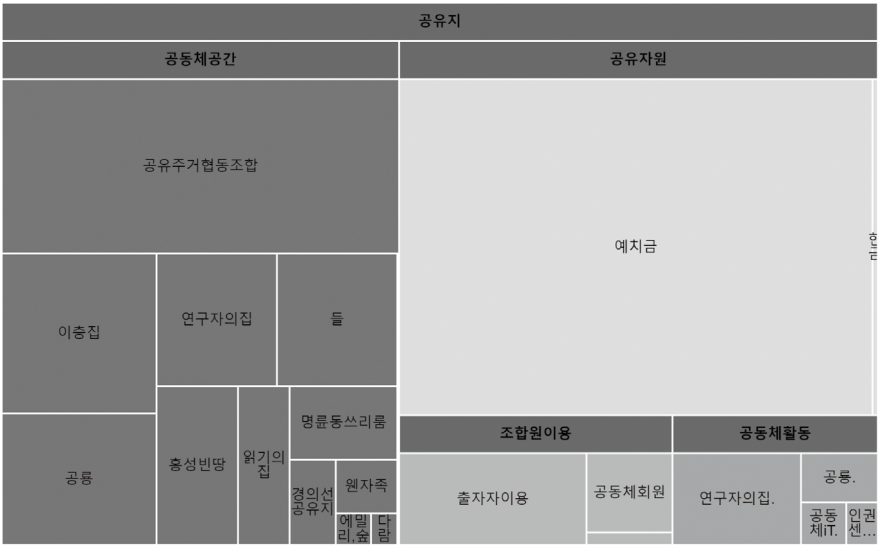




빈고 공유상태표

2023.12.31 기준

빈고의 현재 상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공유상태표를 사용합니다. 빈고의 공유상태표는 공유지 = 공유자라는 등식을 사용합니다. 공유자들 각자가 모은 금액이 공유지로 흘러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기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각 칸은 공유지와 공유자들의 이름과 금액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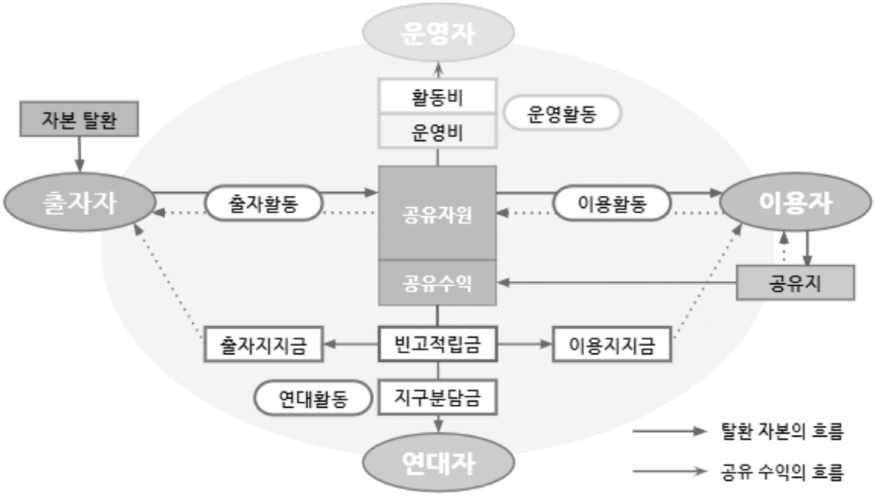


공유자
출자자
적립금
출자자1
출자자2
출자자3
출자자4
출자자5
출자자6
출자자7
출자자8
출자자9
출자자10
출자자11
출자자12
출자자13
출자자14
출자자15
출자자16
출자자17
출자자18
출자자19
출자자20
출자자21
출자자22
출자자23
출자자24
출자자25
출자자26
출자자27
출자자28
출자자29
출자자30
출자자33
출자지지금
빈고적립금
당기잉여금
지구분담금
활동가기금
공동체
건강계
따로또같이
연구자의 집
은평공간
커먼즈넷후...
졸라맨
국경을넘는계
빈땅조합
해방촌사람들
홍성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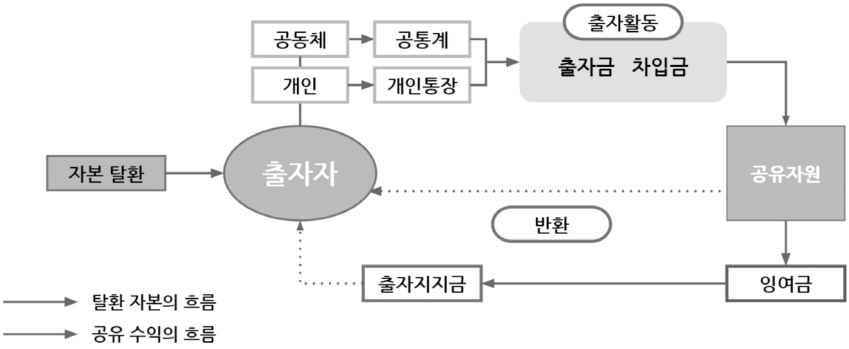
빈고 공유상태표

빈고의 활동

공동체 은행 빈고는 조합원들의 출자 · 이용 · 연대 · 운영의 상호 평등한 활동을 통해 구성됩니다. 빈고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누구나 빈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조합원은 모두 출자자 · 이용자 · 연대자 · 운영자로서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1. 출자활동



출자활동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빈고에 함께 모으는 활동입니다. 출자활동은 '예금'과는 달리 조합원 개인의 화폐를 공유자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빈고의 조합원은 자본수익이 아닌 공동체와 공유지의 확산을 위해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빈고에 출자합니다. 개인 조합원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구성하여 만든 공동체도 통장을 개설하여 개인 출자와 별도로 출자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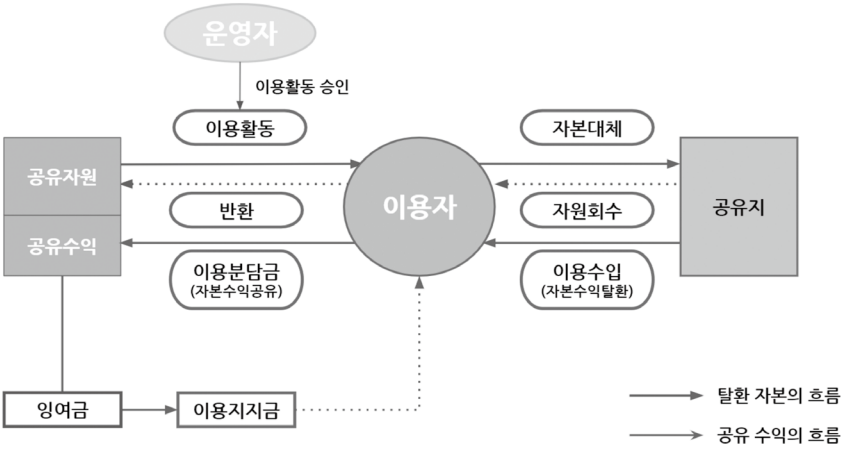
출자활동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예금방식 출자: 여유 자금 등을 자유로이 출자함
2. 적금방식 출자: 매월 일정한 금액을 출자함
3. 비율방식 출자: 정기적으로 수입의 일정한 비율을 출자함

빈고는 출자활동을 지지하기 위해 잉여금의 일부를 출자자에게 '**출자지지금**'의 형태로 배당 및 적립합니다. 출자지지금은 신협 예금이율 이하로 적립되고, 매년 누적된 출자지지금은 조합원 탈퇴 시에 반환됩니다. 조합원과 공동체는 언제든 출자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출자금을 다른 조합원에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동의에 따라, 출자금을 조합비 출금 · 공동체회비 출금 · 정기 이체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빈고의 자본금으로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손실에 관한 책임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2. 이용활동



이용활동은 출자활동을 통해 모인 출자금을 공유하는 활동으로, '대출'과는 달리 조합원과 공동체는 스스로의 필요, 공유지의 조성 및 확장을 위해 빈고의 공유자원을 '**이용**'합니다.

이용활동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책임활동가와 상의하여 이용활동 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운영활동가회의는 제출된 이용활동 계획서를 검토하고 이용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용활동가는 이용한 금액을 반환하기 전까지 한달에 한 번 이용활동을 책임활동가와 공유합니다.

이용활동가는 빈고의 공유자원을 활용하여 월세, 이자 등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처럼 이용활동을 통해 얻어진 자본수익의 추정금액을

이용수입이라고 합니다. 이용수입은 빈고의 모든 조합원이 협력을 통해 자본으로부터 탈환한 것으로, 이용활동가는 이용수입을 사용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빈고에 '**이용분담금**'의 형태로 공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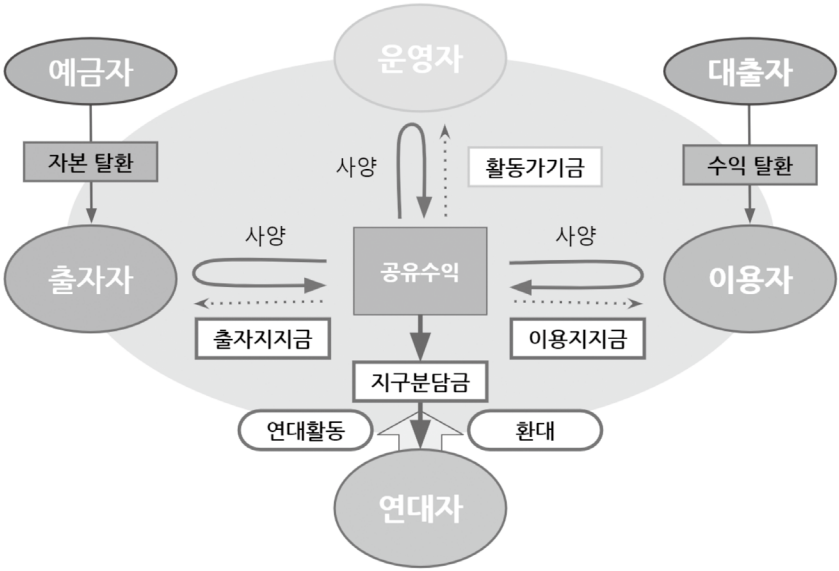
빈고는 또한 당기 잉여금의 10% 이상을 이용지지금으로 배당하며, 이용활동가에 분배하여 적립합니다. 적립한 금액은 이용활동가의 탈퇴 또는 공동체의 종료 시에 반환되며, 이용활동가는 이용지지금의 일부를 공동체기금으로 적립하여 빈고를 이용하는 공동체와 연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연대활동

빈고는 잉여금이 빈고의 외부, 연대가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연대활동을 합니다. '**연대**'는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하는 행동으로, 빈고의 존립목적에 따라 빈고가 탈환한 자본수익을 금융자본에게 빼앗겼던 원래의 주인인 만인에게 돌려주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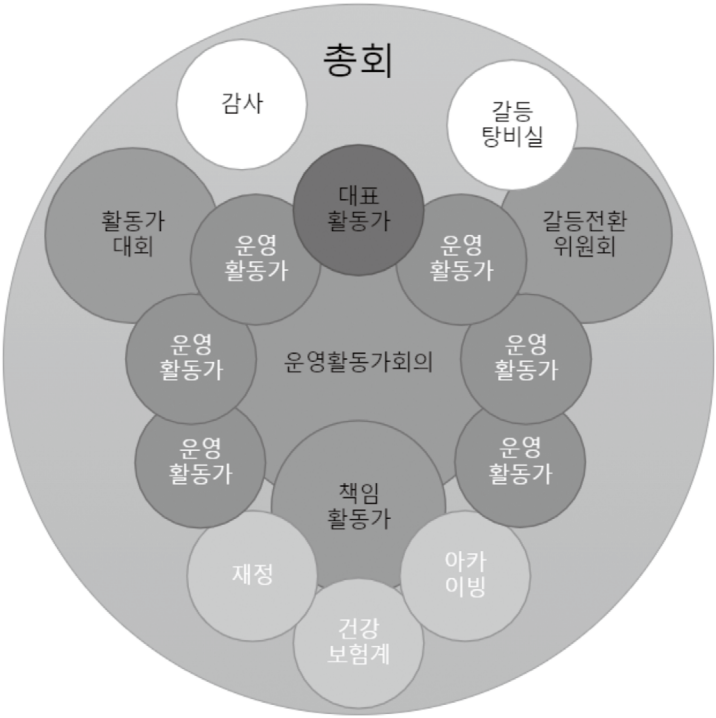
연대활동을 위해 빈고는 당기잉여금의 10% 이상을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과 함께 나누기 위해 '**지구분담금**'으로 배당하고, 적립합니다. 빈고의 조합원은 각자 연대하고자 하는 공동체, 단체, 주체, 현장 등에 대한 지구 분담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연대 활동의 계획을 빈고에 공유 및 제안하여야 합니다.

4. 운영활동



운영활동은 빈고의 조합원들과 공동체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활동입니다. 대표활동가 및 책임활동가를 포함한 30명 이내의 운영활동가는 운영활동가회의에 모여 빈고의 운영과 의사결정을 논의합니다. 또한 운영활동가회의는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 등의 진행과 공유, 총회가 위임한 사항 등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빈고의 조합원은 누구나 운영활동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빈고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운영활동가는 운영활동가회의 혹은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1. 총회

빈고 조합원 모두가 모이는 총회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빈고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출자금 1만빈 이상의 모든 정조합원이 1표의 의결권을 갖습니다.

지난해 활동을 평가하고,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재정상황을 공유하고, 잉여금을 분배하고, 예산안을 정합니다.

대표활동가, 운영활동가, 책임활동가, 감사를 선출합니다.

2. 운영활동가회의

운영활동가회의는 대표활동가, 운영활동가, 책임활동가가 1달에 한 번 진행하는 회의입니다.
활동의 계획과 평가, 이용활동, 예산집행, 적립금사용 등의 결정을 합니다.
일상적인 의결은 온라인채팅방에서 진행합니다.

3. 대표활동가

대표활동가는 운영활동가회의와 총회를 주재하고, 책임활동가와 함께 활동합니다. 운영활동가회의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빈고를 대표해서 활동합니다.

4. 책임활동가

빈고 운영에 필수적인 활동들을 수행하고 적절한 활동비를 받습니다.
현재는 재정활동, 아카이빙, 건강보험계를 각각 담당하는 책임활동가들이 있습니다.

5. 감사

모든 조합원을 대신해서 빈고의 활동을 감독합니다.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6. 갈등탕비실

빈고 또는 빈고 공동체들에서 구성원들의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빈고폰과 전용이메일을 통해서 언제든 상담신청하면 담당자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7. 갈등전환위원회

갈등탕비실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갈등의 해결과 예방을 위하여 갈등전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빈고 내에서 발생한 갈등 또는 고충의 조사 및 합의 권고, 상담,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의견진술 권고, 교육이수 권고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8. 활동가대회

빈고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활동가들과 함께하는 활동가대회가 1년에 1회 이상 열립니다.
온라인 채팅방에서 상시적으로 소식을 공유합니다.

빈고 공동체란?

빈고 공동체란 빈고의 조합원 3명 이상이 모여서 빈고 활동계획을 함께 세우고 공유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활동하고 있던 공동체가 빈고의 취지에 공감해서 빈고 공동체로서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는 개인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빈고는 그런 공동체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빈고 공동체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1. 공동체활동가와 책임자

공동체활동가는 빈고와 주로 소통하면서 공동체와 빈고가 잘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공동체책임자는 활동가와 함께 주요 의사결정을 함께하면서 활동가를 지원하고 공동체를 같이 꾸려가는 사람들입니다.

2. 공통계 서비스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는 공통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공동체통장 하나를 더 만들어서 공동체구성원이 같이 입금을 하거나 출금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공동체에서 자체 출자금을 모금하거나 여러개의 계좌가 필요한 경우는 구성원별, 용도별로 여러개의 계정을 만들어서 통합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3. 공동체 출자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세워서 함께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성원 각자가 빈고에 출자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공동체에 필요한 돈을 직접 공동체로 모아줄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빈고는 각 구성원의 빈계좌에서 공동체로 회비, 곗돈, 출자금 등을 정기적으로 자동출금하거나, 반대로 공동체가 각 구성원에게 경비 등을 빈으로 일괄지급 하는 등의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빈고 조합원이라면 공동의 경비를 각자의 빈계좌에서 1/n 씩 일괄 출금하는 빈빵서비스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4. 공동체 공간/활동/회원이용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 빈고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늘어납니다. 공동체공간을 위한 보증금이나 매입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활동을 위한 운영비나 기자재등을 위한 자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생활비나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고가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출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5. 운영활동

빈고는 공동체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들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와 공동체활동가는 빈고의 운영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빈고의 공동체들 (2024.01.03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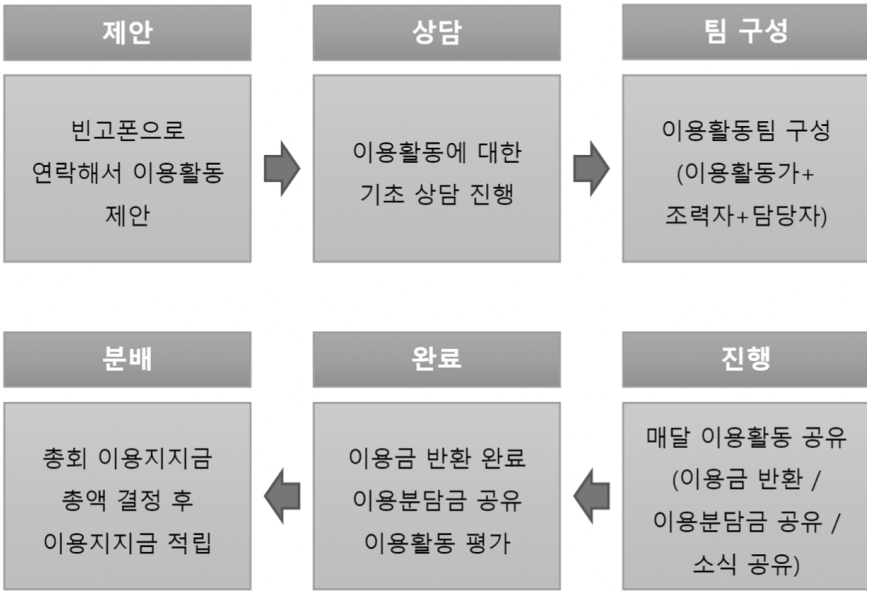
구분	공동체	지역	구분	분류
공유지 공동체 13곳	경의선공유지	서울 마포	상가	임대
	공룡	충북 청주	상가+주택	임대
	두물머리	경기 양평	주택	임대
	들	서울 영등포	사무실	임대
	명륜동쓰리룸	서울 성북	주택	임대
	빈땅조합	충남 홍성	토지	소유
	스튜디오402	충남 홍성	주택	임대
	에밀리,숲	서울 마포	사무실	임대
	연구자의집	서울 마포	사무실	임대
	웬자족	서울 은평	주택	임대
	이층집	서울 영등포	주택	임대
	읽기의집	서울 마포	사무실	임대
	홍성키키	충남 홍성	주택	소유
활동 공동체 24곳	건강계	서울	계	
	공동체IT	서울 은평	협동조합	
	공유주거협동조합	충남 홍성	협동조합	
	국경을넘는계	서울	계	
	그린집	대구	단체	
	내일상회	강원 강릉	단체	
	넥스트젠	서울 노원	단체	
	닐리리만보	전국	계	
	따로또같이	서울 성북	단체	
	망집	서울 마포	계	
	미세마을	전남 해남	단체	
	별음밴드	서울	밴드	
	빈연구소	서울	단체	
	솔방울커먼즈	서울 종로	단체	
	수수노래조합	전남 구례	후원조직	
	에코토피아	서울	단체	
	여행자	서울	단체	
	은평공간	서울 은평	단체	
	이룸	서울 동대문	단체	
	인권센터건축계	서울	계	
	일본빈고	일본	단체	
	졸라맨	파주	계	
	커먼즈넷후원계좌	전국	단체	
	해방촌사람들	서울 용산	단체	

이용활동절차

1. **이용활동제안** : 조합원 또는 공동체가 필요한 돈이 있고, 은행 대신 빈고의 공유자원을 이용해서 이용활동을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언제든 빈고폰으로 연락하셔서 제안해주세요.
2. **이용활동상담** : 빈고폰으로 제안해주시면 담당자가 얘기를 듣고, 적절한 이용활동 프로그램이 있는지, 현재 빈고의 공유자원에 여유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드릴 거에요.
3. **이용활동팀 구성** : 이용활동이 가능하다면, 이용활동을 같이 할 이용활동팀을 구성합니다. 이용활동가와 조력자 및 담당자 3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조력자는 연대보증인이 아니라 이용활동가와 담당자 사이에서 양쪽 모두를 지원하고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활동가와 담당자의 소통은 자칫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처럼 흘러갈 수 있는데 조력자가 함께하며 이용활동을 함께하는 팀으로 만들어 갑니다. 조력자는 이용활동가가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조합원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경우는 공동체가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용활동 담당자는 빈고 운영회의에서 선정해서 이용활동 과정 전반의 진행을 도와줄 거에요.
4. **이용활동계획** : 이용활동팀이 구성되면 이용활동 담당자가 이용활동계획의 기본사항을 정리하고, 이용활동팀이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계획서를 작성해요.
5. **이용활동검토** : 계획서가 완성되면 운영회의에서 운영활동가들이 계획서를 검토하고, 조언을 해줄 거에요. 조언을 바탕으로 계획서를 보완 수정하고 최종 승인이 되면 이용금이 입금되고 이용활동이

시작됩니다.

6. **이용활동진행** : 이용활동은 이용활동계획대로 이용활동가가 진행합니다. 한달에 한 번 정도 이용금을 반환하거나 이용분담금을 공유하거나, 소식을 전해주시면 됩니다. 진행하다가 계획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용활동팀에서 논의해서 수정하면 됩니다.
7. **이용활동완료** : 이용금반환이 종료되면 이용수입을 계산하고, 이용활동을 평가해서 이용분담금을 공유하면 이용활동이 완료되게 됩니다.
8. **이용지지금분배** : 다음 총회에서 이용지지금 총액이 결정되면, 운영회의에서 이용지지금을 이용활동가에게 분배합니다. 이용지지금은 적립했다가, 조합원 탈퇴 또는 공동체 종료시에 지급됩니다.



이용활동프로그램

주체	구분	이용한도	이용수입기준	분담금 상한	사례
공동체	공동체공간 이용	없음	전월세전환율 주택담보대출이율 전세자금대출이율	7.2%	주거공동체, 공동체공간, 공유지 확보를 위한 보증금 및 매입 자금
	공동체활동 이용	1000만빈	없음	7.2%	농사, 가게, 설비, 설립자금 등 공동체활동을 위한 자금
	공동체회원 이용	700만빈	개인신용대출이율 마이너스통장이율	7.2%	공동체 회원의 여행이용, 병원비이용, 분담금이용 등
	공동체출자	없음	공동체 기준에 따름	-	빈고가 공동체에 출자하는 경우
	공동체통장	100만빈	없음	0%	공동체 마이너스통장
출자자	출자자이용	500만빈	개인신용대출이율 마이너스통장이율	7.2%	출자금 3배, 출자지지금 50배 까지 이용가능
	출자금이용	출자금 이내	출자지지금 배당율	3%	출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출자금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
	출자지지금 이용	출자지지금 이내	출자지지금 배당율	0%	출자금 전액 반환후 이용
조합원	빈쌈짓돈	30만빈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0~7.2%	3회 출자 후 이용가능
	기타이용	없음	없음	-	기타 이용활동 제안 가능
	조합원펀드	없음	없음	-	조합원들의 펀드를 모금해서 이용하는 활동

1. 건강보험계

건강계원님 또는 예비 계원님들 안녕하세요. 빈고 건강보험계입니다. 빈고 조합원이면 누구나 가입하실수 있는 건강보험계.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불안하지만, 보험사만 배불리는 사보험은 싫고... 친구가 아플 때 알아채고 적절히 잘 돕기도 쉽지 않고, 정작 나 아플 때 아쉬운 소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어디다 해야할지도 모르겠네! 곗돈을 같이 모으고, 계원들을 함께 도우며, 서로 힘이 되는 건강보험계. 빈고 조합원 여러분, 건강보험계에 가입합시다!! 😊

1. 건강보험계 주요 문서

· 건강계 안내 (6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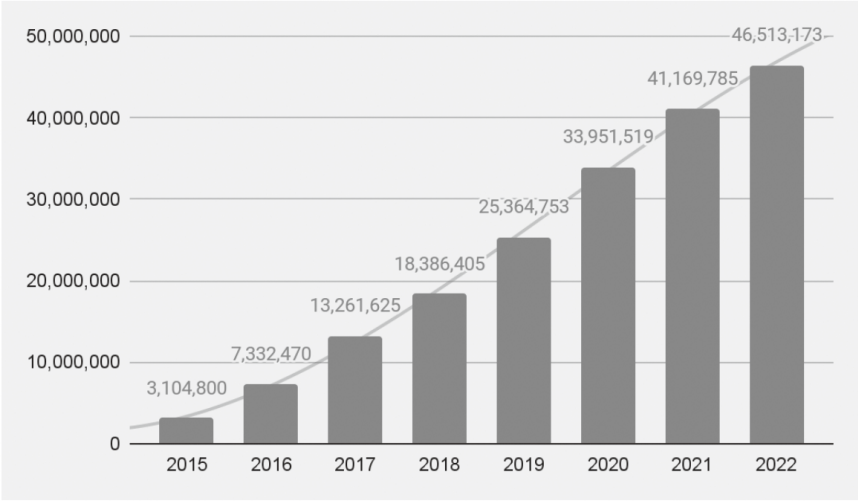
· 건강계 회칙 (5기)

· 지급신청서 (9기)

· 8기 결산 계모임기록

다소 업데이트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8기 결산 자료가 최신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가입문의는 빈고폰(010-3058-1968)이나 유사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2. 건강보험계 누적 곗돈지급액 (단위 : 빈)



2. 빈땅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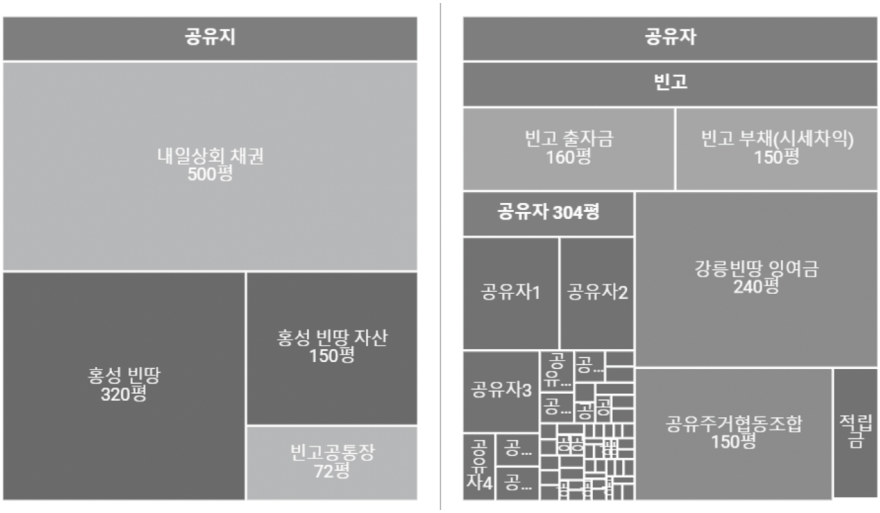
빈땅조합은 공유지를 만들고, 관리하는 조합입니다. 조합원들은 매년 1평=10만빈 이상 땅을 매입해서 공유합니다. 살아 있는 동안 함께 누리고, 돌아갈 때는 공유지로 남기고 떠납니다. 매년 6월에 빈땅캠프를 하며 총회를 갖고 땅을 관리할 공동체를 선정하고 공유지 사용료를 결정합니다. 2015년에 홍성빈땅을 매입해서 공유주거협동조합이 공유주택 키키를 건축했습니다. 2021년에 강릉빈땅을 매입하고 내일상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6번째 빈땅캠프를 강릉 내일상회에서 함께했습니다.

빈땅조합원 텔레그램방에 모여 있습니다. 빈고를 통해 평생조합비 1평=10만빈을 빈땅조합 공통계로 보내주시거나 빈땅캠프에 참여하시면 텔레그램방에 초대해드립니다.

1. 빈땅조합 현황 (2023.09.30)

- 조합원 : 59명
- 공유지 : 1,042평 (1평 = 10만 빈)

2. 빈땅조합 공유상태표 (2023.09.30)



3. 빈땅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권리 :

- 빈땅 1평을 공유한 빈땅의 조합원은 평생조합원이 된다.
- 빈땅에 출자함으로써 공유지를 넓힐 수 있다.
- 빈땅 활용
  - 빈땅을 공유지로서 누릴 수 있다.
  - 빈땅에서 캠핑할 수 있다.
  - 빈땅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떠날 수 있다.
  - 빈땅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관리자공동체
  - 조합원은 각 빈땅의 관리자공동체를 선정하는데 1인 1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관리자공동체는 정해진 기간동안 해당 빈땅에 대한 점유권을 갖는다.
  - 관리자공동체는 땅을 풍요로운 공유지로 가꾸기 위한 관리 원칙을 정할 수 있다.
  - 조합원은 관리자공동체가 정한 원칙을 존중하면서 빈땅을 누릴 수 있다.
  - 조합원은 각 빈땅의 관리자공동체에 참여해서 빈땅을 활용할 수 있다.
- 빈땅캠프(총회)
  - 매년 6월 6일 빈땅에서 모여서 캠핑을 하며 같이 논다.
  - 캠핑 중에 총회를 진행하고 조합의 운영을 위한 주요 결정을 함께한다.
- 이사회
  - 빈땅 이사회는 빈땅 조합 운영을 위한 실무를 집행한다.
  - 빈땅의 이사회는 개인조합원, 관리자공동체, 지역주민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의무 :

- 평생조합비
  - 빈땅 1평 이상을 공유한다.
  - 빈땅 1평은 10만빈으로 한다.
  - 평생조합비는 반환 불가.

- 출자금
  - 해마다 빈땅 1평 이상을 넓혀간다.
  - 출자금은 조합의 규정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 조합원이 별도의 요청없이 사망 또는 연락이 두절된 경우 출자금은 조합에 귀속된다.
- 땅
  - 빈땅으로 공유하기로 선언한 땅의 소유권은 빈땅조합으로만 이전할 수 있다.
  - 불가피한 경우에는 빈땅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
- 활동
  - 매년 빈땅 캠프에 참여한다.
  - 빈고 조합원으로 가입한다.
  - 조합활동에 참여한다.

3. 빈고갈등탕비실

공동체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가지 고민, 상처,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잠시 한발짝 떨어져서 편하게 대화를 나눌 사람과 장소가 있다면 어떨까요?

공동체은행 빈고에 갈등탕비실이 생겼습니다. 갈등탕비실에는 아침 책임활동가가 조합원들을 맞이합니다. 오랜 기간 갈등과 대화를 화두로 고민하고 배우고 연습하고 만나왔던 아침이 든든한 대화상대가 되어 줄 것입니다.

빈고 갈등탕비실은 아래와 같은 일을 합니다. 편하게 말걸어주세요.

1. 편한 수다와 상담

갈등탕비실 이메일 또는 빈고폰으로 연락주시면 담당자와 얘기나눌 수 있습니다.

- 갈등탕비실 담당자 : 아침 활동가 (풀이탐구소 탐정, 빈고 책임활동가)
- 갈등탕비실 이메일 : bingopantry@gmail.com
- 갈등탕비실 안내전화 : 빈고폰 (010-3058-1968)

2. 갈등전환교육

아침 활동가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갈등전환 프로그램과 교육을 진행합니다. 앞으로 참가자를 모아서 진행될 교육과정에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공동체에서 요청할 경우 공동체별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풀이대화 : 질적인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대화 방법을 나눔
- 갈등분석 :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할 것인지를 다룸
- 갈등전환의 기술(협상, 중재, 서클 등) :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당사자와 영향을 받은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을 지원하고 회복해 나갈지를 다룸

3. 갈등전환위원회

갈등탕비실은 대화하면서 갈등전환 방법을 함께 고민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심층적인 상담이나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빈고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갈등전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갈등전환위원회는 갈등에 대해 중재, 조정을 고민하며 공동체 차원의 해결과 전환을 모색합니다.

* 갈등탕비실 관련 비용은 빈고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 추가적인 상담, 교육, 위원회 활동에는 본인 부담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출자가 뭔가요? 어떻게 하나요?

빈고에서는 예금 (금융 기관에 돈을 맡김)이라는 용어 대신 출자 (공공의 일을 위해 자금을 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빈고에 출자한 돈은 은행 예금처럼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습니다. 빈고에 출자하고 싶다면 기업은행 010-3058-1968 (공동체은행 빈고) 계좌로 이체하세요. 조합원 가입할 때 입력한 전화번호로 출자 확인 메시지가 갑니다.

출자 반환은 어떻게 하나요?

빈고 휴대폰(010-3058-1968)으로 문자나 텔레그램 메세지를 보내주세요. 어떤 계좌로 **빈(원) 반환해 달라고 메세지를 보내면 주말 제외 3일 안에 이체하고 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제 출자금을 확인할 수 있나요?

빈고 홈페이지(bingobank.org)에 가입하면 출자금과 출자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할 때, 이름을 빈고에 가입할 때 기입한 조합원명과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그리고 로그인한 뒤 홈페이지 최상단의 자기 조합원 이름이 있는 탭에서 출자 확인 메뉴를 선택하면 출자금 내역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왜 빈고에 출자하려면 기존 은행의 빈고 계좌로 입금해야 되는

거래의 편의를 위해서 금융공동망을 이용해서 이체를 할 수 있도록 타행 계좌 하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건가요?

출자반환과 이용활동에 대비한 최소한의 금액 외에는 타행 계좌에 돈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합니다.

빈고는 합법적인 은행인가요? 빈고에 넣은 제 출자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빈고는 비법적인 조직입니다. 법적인 위상은 조금 크고 꽤 체계적인 계모임 정도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빈고와 같은 금융협동조합을 포괄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이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되지는 않고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모든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손실 가능성이 있고 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출자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만약을 대비해 적립금을 모아두고 있습니다.

왜 멀쩡한 돈을 원이 아니라 빈이라고 부르나요?

1원=1빈으로 교환은 가능하지만, 전혀 다른 원리로 움직이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원이 자본의 화폐라면 빈고의 화폐는 빈입니다. 출자를 하는 순간 원은 빈으로 바뀝니다. 빈은 이자를 낳지 않고, 자본수익을 위한 투자에 활용되지도 않습니다. 대신 빈은 다른 빈고 조합원에게 갈 수도 있고, 공유지에 이용될 수도 있고, 조합원 사이에서는 온전한 화폐의 기능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종이화폐는 없지만 조합원들 사이의 다양한 거래에서 대안화폐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화폐입니다.

내 출자금은 안전한가요? 얼마나 안전한가요?

조합원들의 출자금은 그 자체로 우리가 만든 공유지이기 때문에 공유지가 소모되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은 빈고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안정적인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80% 정도는 전월세보증금이나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등의 공동체공간에 사용합니다. 만약의 경우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반환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반환이 안 되는 경우는 없도록 관리합니다. 빈고 12년 동안 계속해서 적립금을 쌓아오고 있고, 적어도 공동체공간에서 반환이 안되는 건은 없었습니다. 고액의 출자금 반환이 3개월 정도 늦어진 경우는 한 번 있었지만, 나머지는 반환 신청 다음날에는 출자반환을 해왔습니다.

빈고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요. 어떻게 들어가나요?

빈고 공동체들은 각자 나름의 원칙과 의사 결정을 통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각 공동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공동체가 있으시면 빈고폰으로 연락주시면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체로 주거공동체들은 단기 방문이 가능하고, 장기 거주는 그 뒤에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활동공동체는 활동의 취지에 동의하시면 활동에 같이 참여하실 수 있고 출자금, 회비, 후원금 등을 빈고를 통해 정기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계나 빈땅조합 등의 온라인 공동체는 회비 또는 출자금을 빈고를 통해 납부하고 텔레그램방에

함께 하시면 됩니다.

공동체 이용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빈고 공동체가 되려면 공동체 소개와 공동체의 출자/이용/연대/운영 활동계획을 공유해주시면 됩니다. 그 활동 계획의 하나로 이용활동 계획을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용활동 계획은 빈고 홈페이지 이용활동 부분에 있는 다른 공동체들의 계획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구분담금이 기부금이랑 다른 게 뭔가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만약 자본주의가 끝나고 자본이 이윤을 만들기를 그만둔다면, 자본을 대체하는 공유지 역시 금전적인 이윤을 만들어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빈고의 공유자원에서 잉여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지구 어딘가에서 자본에 착취당하고 있는 누군가의 희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빈고는 빈고 외부에서 자본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도 잉여금을 배당합니다. 지구에 살아가는 몫을 분담한다는 의미에서 지구분담금입니다. 이미 빈고 외부의 사람들의 것이라는 점에서 기부나 선물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분담금은 조합원 누구나 빈고 외부에서 자본에 고통받고 저항하는 사람들과 연대할 때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빈고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구성원들이 조합원에 가입하고, 공동체 활동계획을 공유해주시면 됩니다.

빈고 운영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요. 참여 자격이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가장 기본적인 운영활동은 1년에 한 번 있는 총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조합원 교육이나 각종 조합원 모임에 참여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 있는 빈고 활동가대회에 오시면 빈고 활동을 평가하고 다음 계획을 잡는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재미있었다면, 연말연초에 있는 총회 준비 회의에 참여해서 총회 준비를 같이 하시면서 새해 계획을 같이 잡는 것도 더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운영활동가나 대표활동가 또는 감사활동가로 선출되거나 책임활동가로서 필수적인 역할을 맡게 되신다면, 정말 재미있겠죠. 빈고의 운영활동은 뭔가 의미가 있든지 배우는 것이 있든지 일단 재밌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용이 뭔가요? 나도 빈고에서 대출받을 수 있을까요?

은행에서는 대출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빈고에서는 이용이라고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빌려줘서 채권-채무 관계가 형성되는 대출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모두가 소액이라도 출자를 해서 공유자원을 같이 만들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이용활동은 공유자원으로 자본을 대체해서 공유지를 만들고, 자본수익을 탈환해서 공유하는 중요한 활동이 됩니다. 대출자가 아니라 이용활동가가 되는 거죠. 이용활동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므로 같이 잘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빈고의 공유자원을

잘 활용하고 보존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하고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빈고폰으로 문의해주시면 빈고가 함께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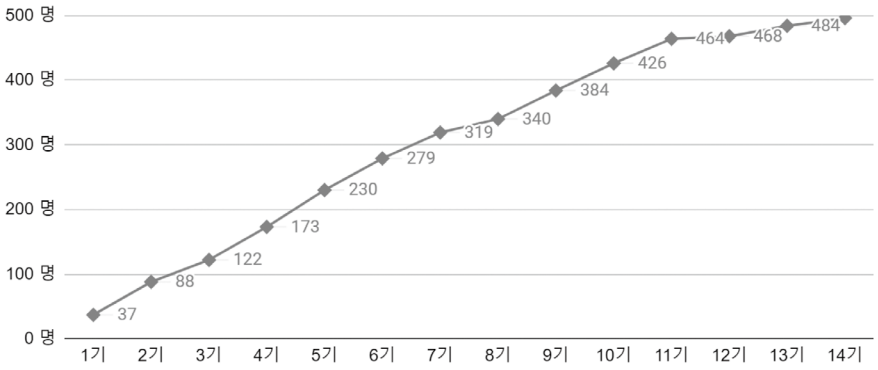
조합비가 있나요? 얼만가요?

빈고의 조합비는 1년에 1만 빈입니다. 출자금은 저축이라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고, 조합비는 빈고의 운영비 또는 총회 참가비 정도의 의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연말에 출자금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조합비를 내시고 출자잔액이 1만 빈 이상인 경우에 총회 의결권이 생깁니다. 동물, 어린이, 단체, 대리인 등의 특수 조합원은 의결권이 없는 대신 조합비가 면제됩니다.

2023.12.31 기준

조합원

				조합원수	전년대비
전체조합원				547 명	+13 명
	현재조합원			496 명	+12 명
		보통조합원		462 명	+12 명
			일반조합원	282 명	+15 명
			출자조합원	180 명	-3 명
		특수조합원		22 명	-4 명
		영구조합원		12 명	+4 명
	탈퇴조합원			51 명	+1 명



활동가

구분	대표활동가	상임활동가 / 책임활동가	감사	공동체활동가 / 운영활동가	주요 변화
1기		자주, 지음, 지각생	슈아	매달 당첨운영위원	빈마을금고 취지문 초기 준비 단계 자치적 구조 강조(대표없음, 당첨운영위원)
2기		지음, 우마	희공, 석류, 들깨, 시금치	자주, 켄짱, 연두, 들깨, 석류, 잔잔, 병채, 이슷	다양한 잉여금분배 실험
3기	잔잔, 켄짱, 규섭, 좌인, 양군	지음, 체, 산하		양군, 잔잔, 이경, 나루, 크트, 우중산책, 규섭, 김환수, 지음, 켄짱, 좌인, 하루, 산하, 체, 현민	빈마을을 넘어서 확장
4기	주노정, 좌인	지음, 오디	모기, 테아	좌인, 양군, 오디, 유농, 청하, 산하, 잔잔, 우중산책, 살구, 지음, 주노정, 자유, 매콩, 땡땡, 하람, 파스, 곰자	공동체기금 도입
5기	좌인, 파스, 곰자	오디	지음, 말랴	자유, 정민, 종민, 하람, 매콩, 땡땡, 테아, 돌고래, 시오, 파스, 곰자, 켄짱, 몽애, 그링, 한돌	공동체은행 빈고' 명칭 수정
6기	부깽, 정민, 몽애	오디, 곰자, 정민 / 지음, 좌인, 부깽	양군, 우중산책	파스, 한돌, 종민, 그링, 시오, 라일락, 켄짱, 슉슉	빈고 홈페이지 오픈 건강보험계 시작
7기	서원	정민, 서원, 오디 / 몽애, 지음, 칡, 정민	살구	보선, 병택, 룡룡, 슉슉, 좌인, 둥쟁, 나마스떼, 웅기, 곰자, 드론, 센, 쉐프, 디온, 천피터, 김기민	빈고선언문 채택 운영활동 텔레그램방 개설
8기		서원, 지음 / 부깽, 정민	기픈옹달	보선, 병택, 룡룡, 쉐프, 디온, 나마스떼, 우더, 동녘, 양군, 광대, 웅기, 지음, 곰자, 청하, 센, 천피터, 토양, 김기민,	온라인 출자조회 시작 화폐단위 변경 빈땅조합 창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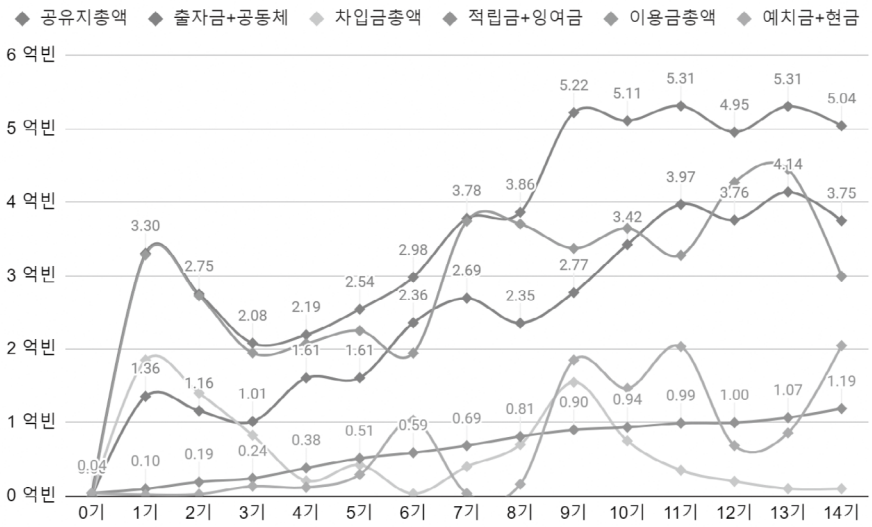
				켄짱	
9기	땡땡, 하루, 나루, 살구, 니름	서원, 지음 / 부깽, 정민, 우더	센, 정훈	우중산책, 땡땡, 마루, 센, 천피터, 나마스떼, 광대, 반바지, 토양, 성재, 다옹, 웅기, 사, 날맹, 지선, 자기, 염	1빈 단위 출자 도입 공유주거협동조합 설립
10기	하루, 나루, 살구, 니름	서원, 지음 / 부깽, 사, 수수	크트, 지각생, 졔졔	센, 반바지, 광대, 날맹, 준현, 우중산책, 지음, 다옹, 김단, 쵱혱영	공동체통장 조회
11기	우중산책	지음 / 살구, 부깽, 숲이아	다옹, 김단	판다리, 졔졔, 미어캣, 날맹, 정훈	운영위원 / 책임활동가 체제로 변경 갈등중재위원회 활동 오프라인/온라인 필수 조합원교육 시작
12기	우중산책	지음, 살구, 부깽, 아침, 다솜	성재, 하지메	베로, 산미, 숲이아, 쏭, 윤기쁨, 정훈, 졔졔, 판다리, 하루, 하얀늑대	온라인회의 갈등탕비실 운영
13기	정훈	지음, 살구, 부깽, 아침	햄, 등대, 아침	우중산책, 산미, 몽애, 좌인, 온, 람RAHM, 설해, 하지메	공통계, 미디어워크샵, 조합원소풍, 빈연구소,핸드북 발간, 팀별 활동
14기	정훈	지음, 유선, 부깽	햄, 등대, 아침	몽애, 산미, 설해, 온, 하지메, 반바지, 이파람, 산초	분기별 감사

공동체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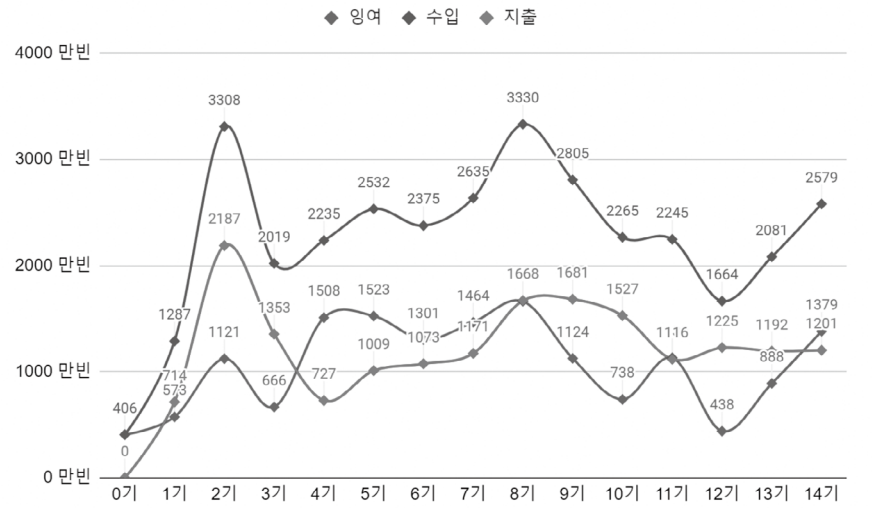
No	공동체공간	0기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11기	12기	13기	14기
62	읽기의집	-	-	-	-	-	-	-	-	-	-	-	-	-	-	-
61	연구자의집 R커먼즈	-	-	-	-	-	-	-	-	-	-	-	-	-	-	-
60	두물머리 언덕집	-	-	-	-	-	-	-	-	-	-	-	-	-	-	-
59	이층집	-	-	-	-	-	-	-	-	-	-	-	-	-	-	-
58	내일상회/강릉빈땅	-	-	-	-	-	-	-	-	-	-	-	-	-	-	-
57	스튜디오402	-	-	-	-	-	-	-	-	-	-	-	-	-	-	-
56	여덟집	-	-	-	-	-	-	-	-	-	-	-	-	-	-	-
55	망집2	-	-	-	-	-	-	-	-	-	-	-	-	-	-	-
54	에밀리,숲	-	-	-	-	-	-	-	-	-	-	-	-	-	-	-
53	공룡 게스트하우스	-	-	-	-	-	-	-	-	-	-	-	-	-	-	-
52	경의선공유지 연대가게2	-	-	-	-	-	-	-	-	-	-	-	-	-	-	-
51	경의선공유지 연대가게1	-	-	-	-	-	-	-	-	-	-	-	-	-	-	-
50	단편집	-	-	-	-	-	-	-	-	-	-	-	-	-	-	-
49	웬자족	-	-	-	-	-	-	-	-	-	-	-	-	-	-	-
48	망집	-	-	-	-	-	-	-	-	-	-	-	-	-	-	-
47	내일상회	-	-	-	-	-	-	-	-	-	-	-	-	-	-	-
46	이룸	-	-	-	-	-	-	-	-	-	-	-	-	-	-	-
45	미세마을	-	-	-	-	-	-	-	-	-	-	-	-	-	-	-
44	레드북스	-	-	-	-	-	-	-	-	-	-	-	-	-	-	-
43	평집	-	-	-	-	-	-	-	-	-	-	-	-	-	-	-
42	골목쟁이네	-	-	-	-	-	-	-	-	-	-	-	-	-	-	-
41	홍성키키	-	-	-	-	-	-	-	-	-	-	-	-	-	-	-
40	들	-	-	-	-	-	-	-	-	-	-	-	-	-	-	-
39	그린집	-	-	-	-	-	-	-	-	-	-	-	-	-	-	-
38	빈땅조합	-	-	-	-	-	-	-	-	-	-	-	-	-	-	-
37	해방촌이야기/해방촌사람들	-	-	-	-	-	-	-	-	-	-	-	-	-	-	-
36	노는집	-	-	-	-	-	-	-	-	-	-	-	-	-	-	-
35	잘자리2호	-	-	-	-	-	-	-	-	-	-	-	-	-	-	-
34	홍부집	-	-	-	-	-	-	-	-	-	-	-	-	-	-	-
33	홍보아지	-	-	-	-	-	-	-	-	-	-	-	-	-	-	-
32	명륜동쓰리룸	-	-	-	-	-	-	-	-	-	-	-	-	-	-	-
31	우정국	-	-	-	-	-	-	-	-	-	-	-	-	-	-	-
30	온지곤지	-	-	-	-	-	-	-	-	-	-	-	-	-	-	-
29	빈컴퓨터	-	-	-	-	-	-	-	-	-	-	-	-	-	-	-
28	더스페이스	-	-	-	-	-	-	-	-	-	-	-	-	-	-	-
27	비행	-	-	-	-	-	-	-	-	-	-	-	-	-	-	-
26	얼티즌	-	-	-	-	-	-	-	-	-	-	-	-	-	-	-
25	잘자리	-	-	-	-	-	-	-	-	-	-	-	-	-	-	-
24	모두들	-	-	-	-	-	-	-	-	-	-	-	-	-	-	-
23	공룡 이따	-	-	-	-	-	-	-	-	-	-	-	-	-	-	-
22	공룡 앞집	-	-	-	-	-	-	-	-	-	-	-	-	-	-	-
21	해방촌학숙/사랑채	-	-	-	-	-	-	-	-	-	-	-	-	-	-	-

20	수유R	-	-	-	-	-	-	-	-	-	-	-	-	-	-	-
19	마실집	-	-	-	-	-	-	-	-	-	-	-	-	-	-	-
18	구름집	-	-	-	-	-	-	-	-	-	-	-	-	-	-	-
17	해방촌연구소/사랑채/밝은정원	-	-	-	-	-	-	-	-	-	-	-	-	-	-	-
16	살림집	-	-	-	-	-	-	-	-	-	-	-	-	-	-	-
15	공룡 끝집	-	-	-	-	-	-	-	-	-	-	-	-	-	-	-
14	작은집	-	-	-	-	-	-	-	-	-	-	-	-	-	-	-
13	까페해방촌	-	-	-	-	-	-	-	-	-	-	-	-	-	-	-
12	해방채	-	-	-	-	-	-	-	-	-	-	-	-	-	-	-
11	계단집	-	-	-	-	-	-	-	-	-	-	-	-	-	-	-
10	만행	-	-	-	-	-	-	-	-	-	-	-	-	-	-	-
9	공부집/넓은집/이락이네	-	-	-	-	-	-	-	-	-	-	-	-	-	-	-
8	하늘집	-	-	-	-	-	-	-	-	-	-	-	-	-	-	-
7	빈가게	-	-	-	-	-	-	-	-	-	-	-	-	-	-	-
6	빈농집	-	-	-	-	-	-	-	-	-	-	-	-	-	-	-
5	앞집	-	-	-	-	-	-	-	-	-	-	-	-	-	-	-
4	가파른집	-	-	-	-	-	-	-	-	-	-	-	-	-	-	-
3	옆집/낭만집	-	-	-	-	-	-	-	-	-	-	-	-	-	-	-
2	윗집	-	-	-	-	-	-	-	-	-	-	-	-	-	-	-
1	빈집/아랫집/	-	-	-	-	-	-	-	-	-	-	-	-	-	-	-
-	합계 : 62 곳	6 곳	7 곳	7 곳	15 곳	13 곳	15 곳	15 곳	21 곳	17 곳	24 곳	19 곳	23 곳	22 곳	18 곳	16 곳

공유지(자산)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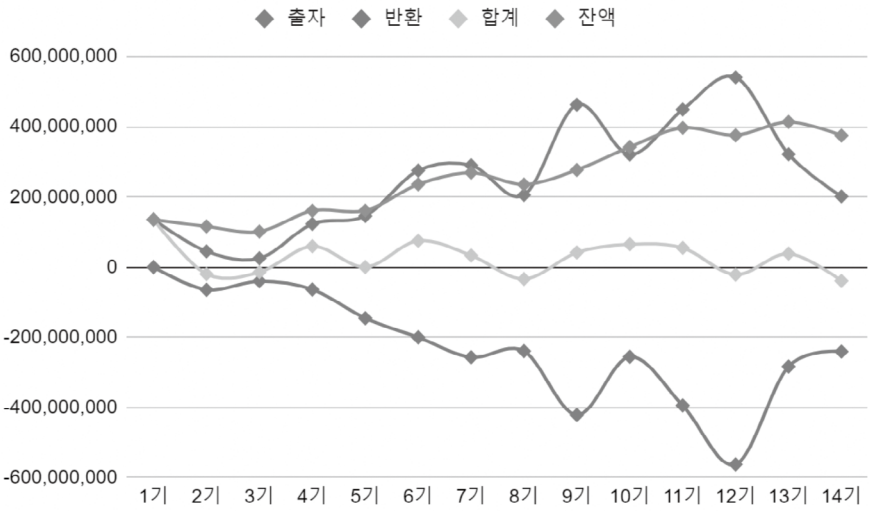


수입,지출,잉여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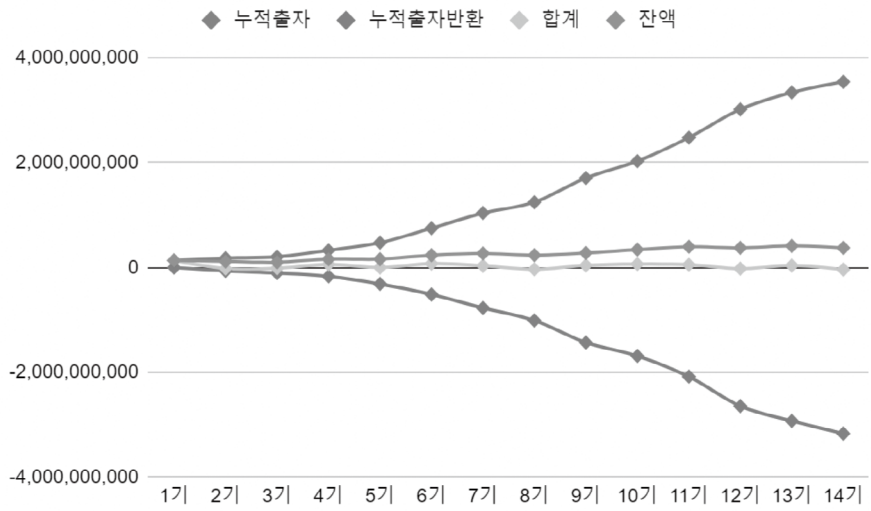


출자활동

1. 연도별 출자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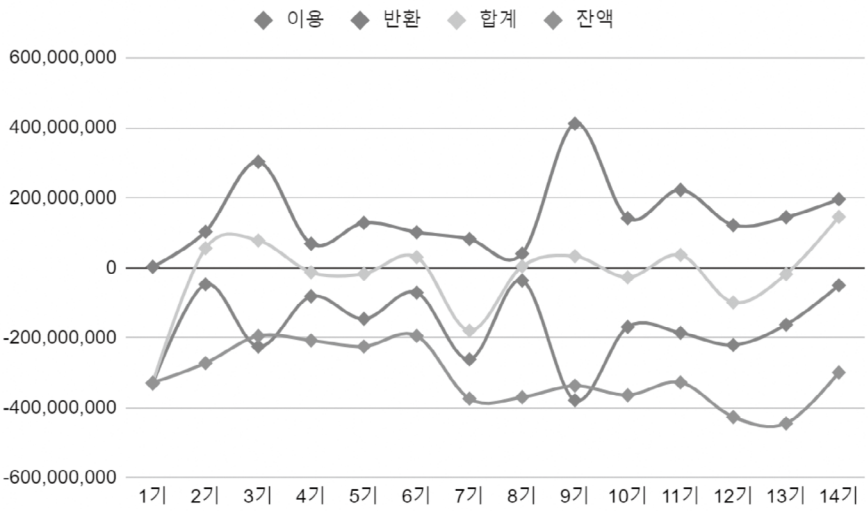


2. 연도별 누적 출자 – 출자반환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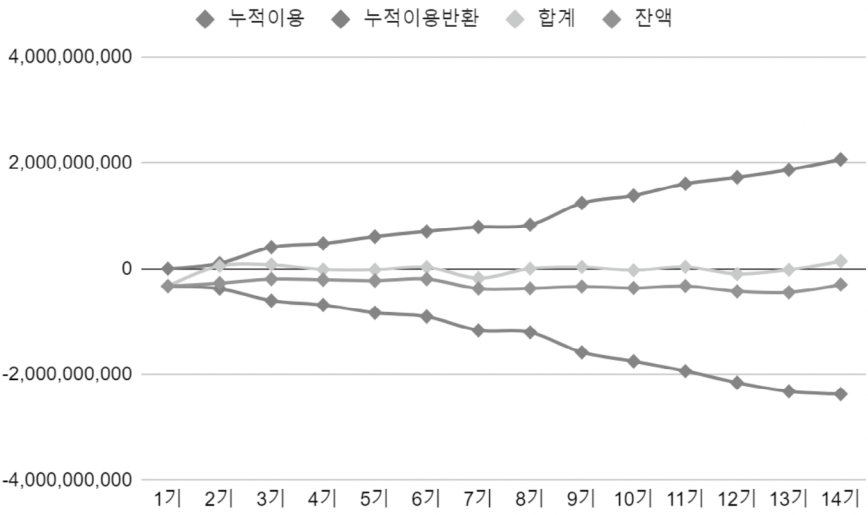


이용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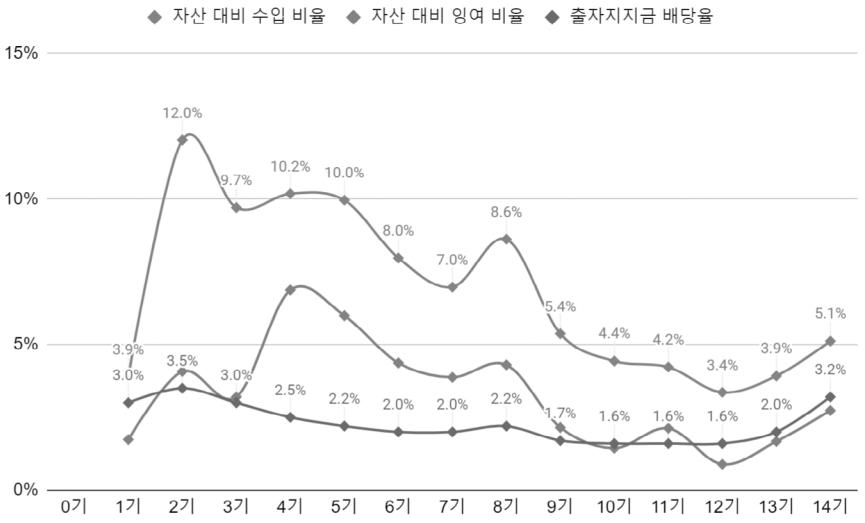
1. 연도별 이용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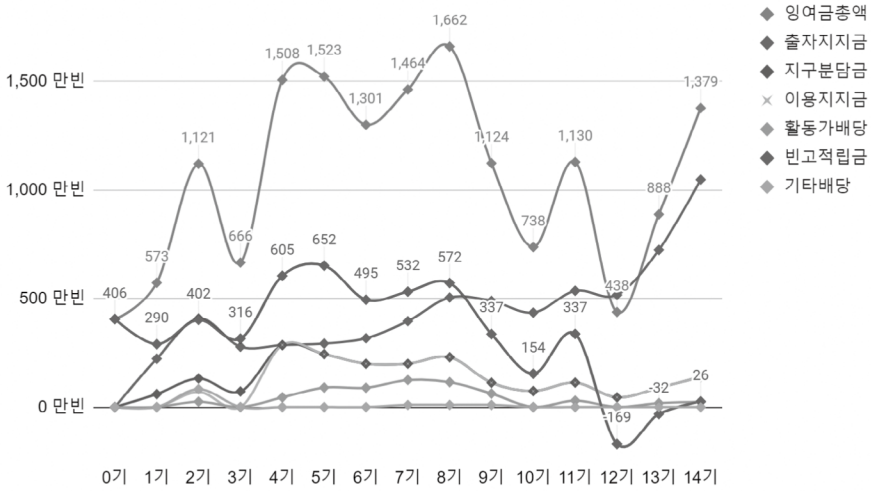
2. 연도별 누적 이용 - 이용반환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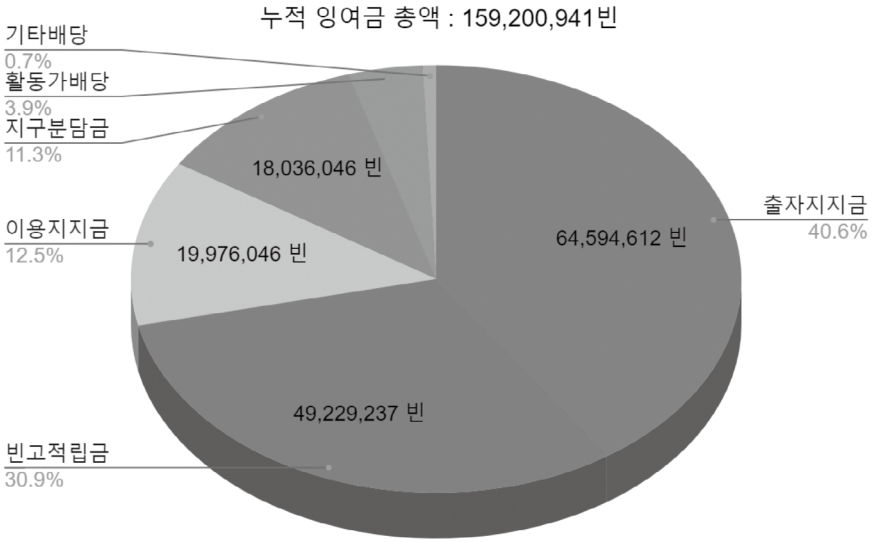
배당율, 잉여율 변동



잉여금 분배 변동



누적잉여금분배



빈고영구조합원

혼양	케이시	사슴	쟤
2015-12-06	2018-09-20	2020-05-22	2022-12-19
김환수	백련	일농	여농
2023-05-26	**2022-03-18**	**2023-08-09**	**1993-09-11**

복돌이	동글이	러니	빙거
동물 조합원			

빈고 정관

[정관 제1호, 2022. 01. 29., 제정]

제정 2022. 01. 29.

전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생명이 함께 누리고 가꾸며 살아가는 공유지다.
우리는 공유지를 망치는 독점과 수탈과 차별에 반대한다.
우리는 돈이 돈을 버는 자본의 질서에 반대한다.
우리는 자본의 은행에서 벗어나 탈자본의 은행을 함께 만들기 위해 모였다.
우리는우리의화폐가자본이아닌공유지가될수있도록하는실천을함께한다.
우리는 자본을 위한 저축을 거부하고, 빈고의 공유지에 출자한다.
우리는 자본을 위한 대출을 거부하고, 빈고의 공유지를 이용한다.
우리는 자본수익을 사양해서, 자본에게 빼앗긴 빈고의 외부와 연대하고 환대한다.
우리는 황폐한 공유지나 또 하나의 자본이 되지 않도록, 빈고를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우리는 자본의 원리를 넘어 공유를, 국가의 원리를 넘어 자치를, 가족의 한계를 넘어 환대를 실현하는 공유지, 공동체은행 빈고를 함께 만들어간다.
우리는 공유, 자치, 환대하는 공동체들의 공동체로서, 스스로 공유지가 되어 지속적으로 확장한다.
능력에 따라 출자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한다.
기쁘게 연대하고, 재밌게 운영한다.

제1조(명칭) ① 우리 조합의 명칭은 "빈고"로 한다.

② 빈고의 영문표기는 "BINGO"로 한다.

제2조(목적) 빈고는 빈고 선언문과 빈고 취지문 및 제4조에서 정한 이념에 따라 조합원들을 규합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출자활동 :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모으고 돌려주고 관리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2. 이용활동 : 빈고의 공유자산을 공동체와 공유지와 조합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연대활동 : 빈고의 잉여금이 빈고의 외부, 연대가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한다.
4. 운영활동 : 빈고 조합원들과 공동체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협력을 도모한다.
5. 교육활동 :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교육, 연구, 학습 및 사업을 수행한다.
6. 빈고와 같은 취지의 금융 조직과 협력한다.

제3조(정의) 이 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이란 빈고의 화폐단위이며, 1빈의 가치는 1원과 동등하다.
2. "출자"란 '예금'과 다르게, 조합원이 자신의 화폐를 공유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빈고에 함께 모으는 활동으로서, 절차에 따라 반환할 수 있고, 손실 가능성이 있다.
3. "이용"이란 '대출'과 다르게, 공동체와 조합원이 스스로의

필요와 모두의 공유지를 위해 빈고의 공유자원을 활용하고 누리는 활동이다.

4. "반환"이란 출자자가 출자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거나, 이용자가 이용한 금액을 이용활동이 종료되어 다시 빈고로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이용수입"이란 빈고의 공유자원을 이용함으로써 금융자본에 빼앗기던 자본수익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을 말한다.
6. "이용분담금"이란 이용활동가가 이용수입의 전체 또는 일부를 빈고에 전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연대"란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하는 행동으로서, 빈고의 존립 목적에 따라 빈고가 탈환한 자본수익을 금융자본에게 빼앗겼던 원래의 주인인 만인에게 돌려주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출자지지금"이란 출자자의 출자활동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빈고의 잉여금의 일부를 출자자에게 배당하고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조합원 탈퇴 시에 반환된다.
9. "이용지지금"이란 이용자의 이용활동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빈고의 잉여금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배당하고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조합원 탈퇴 또는 공동체 해체시에 반환된다.
10. "지구분담금"이란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과 함께 나누기 위해 연대자에게 배당하고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조합원의 연대활동을 위해 사용된다.
11. "공동체기금"이란 빈고와 함께하거나 함께하게 된 모든 공동체들의 활동에 연대하기 위해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12. "빈고적립금"이란 빈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빈고의 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한 것으로서 총회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이념) 빈고가 추구하는 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지 : 우리는 각자의 자원을 모으고 함께 누리며 모두 수익은 사양함으로써, 공유지를 만들고 돌보고 넓힌다.
2. 자치 : 우리는 수탈과 지배에 기반한 국가의 원리를 넘어, 자치를 실천한다.
3. 공유 : 우리는 경쟁과 독점에 기반한 자본의 원리를 넘어, 공유를 실천한다.
4. 환대 : 우리는 차별과 고립에 기반한 가족의 원리를 넘어, 환대를 실천한다.

제5조(소재지) ① 빈고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홍성군에 둔다.

② 빈고는 우주 어디든지 공동체가 존재하는 곳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1절 의결기관

제1관 총회

제6조(설치) 빈고의 의사결정을 위해 모든 조합원들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제7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빈고의 주된 사업에 관한 사항
2. 빈고의 예산에 관한 사항
3. 빈고의 중요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4. 대표활동가 등 활동기관 및 감독기관의 선출
5. 정관 및 빈고 전반에 걸친 규약・규칙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빈고의 목적, 명칭, 이념 또는 존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항

제8조(구성) ① 정기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단, 의결권 없는 조합원은 정족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② 의장은 대표활동가가 되고, 부의장은 운영활동가 중에서 선출된 사람이 된다.

제9조(소집 및 운영)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의 회계분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요구나 운영활동가회의의 결정이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③ 총회 준비업무를 담당하는 활동가는 총회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총회의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총회는 의결권 있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총회에는 서면・원격 또는 다른 조합원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 총회는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모든 조합원이 동등하게 발언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의결사항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준비위원회) ① 정기총회의 원활한 준비 및 소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기총회준비위원회 (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준비위원회는 책임활동가 및 참여를 원하는 조합원으로 구성된다.

제2관 운영활동가회의

제11조(설치) 빈고의 운영 및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활동가회의를 둔다.

제12조(구성) ① 운영활동가회의는 대표활동가 및 책임활동가를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운영활동가로 구성하되, 임시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의장은 대표활동가가 된다.

제13조(기능) 운영활동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 등의 진행 및 공유
2. 빈고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및 제안에 대한 논의
3. 운영활동가회의에서 결정하도록 총회가 위임한 사항
4. 정관 및 기타 규약에서 운영활동가회의가 처리할 사항으로 정한 사항
5. 긴급하거나 기타 성질상 운영활동가회의가 처리할 사항

제14조(소집 및 운영) ① 운영활동가회의는 의장이 매 1개월마다 소집한다. 단, 임시총회가 소집되는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누구나 운영활동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운영활동가회의는 필요한 경우 관계 조합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운영활동가회의는 재적활동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활동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같다.

④ 운영활동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활동가회의에서 정한다.

제2절 활동기관

제1관 대표활동가

제15조(대표활동가) ① 대표활동가는 빈고를 대표하며 빈고의 운영을 총괄하고 유지한다.

② 대표활동가는 총회의 의결로 뽑는다.

③ 대표활동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및 운영활동가회의의 주재
2. 책임활동가 직무의 감독 및 지시
3. 기타 정관에서 정한 사항의 수행

④ 대표활동가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운영활동가회의에서 뽑은 임시대표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가 다수인 때에는 공동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제2관 책임활동가

제16조(책임활동가) ① 빈고의 상시적인 운영 및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책임활동가를 둔다.

② 책임활동가는 자원하거나 운영활동가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대표활동가가 임명한다.

③ 책임활동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고 사무의 집행 및 유지업무의 수행

2. 총회 및 운영활동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
3. 대표활동가가 지시한 업무의 수행

제3관 운영활동가

제17조(운영활동가) ① 빈고의 운영활동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운영활동가를 둔다.
② 운영활동가는 운영활동가회의에서 뽑거나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뽑는다.
③ 운영활동가는 운영활동가회의의 일원으로서 빈고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④ 운영활동가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4관 공동체활동가

제18조(공동체활동가) 공동체활동가는 빈고를 이용하는 공동체를 대표하여 다른 공동체들과 소통하고 연대한다.

제3절 감독기관

제19조(감사) ① 빈고의 사업, 재무상황, 회계 등 운영 전반을 감독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대표활동가 혹은 책임활동가를 겸임할 수 없다.
⑤ 감사는 매 분기별 조합의 운영상황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빈고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총회나 운영활동가회의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게을리 할 경우 직권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절 갈등전환위원회

제20조(설치) 빈고 내에서 발생한 갈등의 원만하고 평화로운 해결과 예방을 위하여
갈등전환위원회(이하 본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빈고 내에서 발생한 갈등 또는 고충의 조사 및 합의 권고, 상담,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의견진술 권고, 교육이수 권고 등의 처리
2. 총회 또는 운영활동가회의가 위원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
3. 빈고 내의 갈등 또는 갈등위험상황 및 위원회가 시정이나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안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또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활동가회의에서 선출한 자 중에서 대표활동가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각 사건에 한해 임시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뽑는다. 이 경우 각 사건별로 구성할 위원의 수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1.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경우 :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및 운영활동가회의에서 선출하는 1인
2.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경우 :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 및 운영활동가회의에서 선출하는 2인

⑤ 위원장 및 위원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의사결정)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빈고의 기관 또는 구성원에 대하여 제재적인 결정을 하는 때 위원간 의견이 다른 경우 가장 불이익한 의견부터 차례대로 계산하여 과반수에 도달하게 되는 의견을 위원회의 결정으로 본다.
③ 빈고의 각 기관 및 구성원은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사건의 접수 및 처리) ① 사건의 접수는 책임활동가나 위원장에게 할 수 있다.
② 사건의 접수는 신고, 진정, 탄원, 알림, 문제제기 등 명칭에 구애 없이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말로써 할 수 있다.
③ 사건을 접수한 책임활동가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장에게 전달해야 하며, 사건을 접수받거나 전달받은 위원장은 조사 및 처리에 착수해야 한다.

제25조(잠정조치)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종적인 결정에 앞서서 다음 각 호의잠정적조치를할수있다.

1. 직무정지 : 사건 당사자가 빈고의 활동기관이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 그 직무와 권한을 잠정적으로 정지함

2. 접견제한 : 사건 당사자가 특정 사람과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경우이를제한함
3. 가집행권고 : 빈고 집행기관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사건에 있어서 해당 집행을 하도록 관련기관에 권고함
4. 집행정지 : 빈고 집행기관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사건에 있어서 해당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함

② 전항의 조치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 효력이 있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자문요청)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사실조사)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관련서류를제출받을수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빈고 내의 각종 회의 및 활동을 참관할 수 있다.

제2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가족관계 또는 기타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친분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자문을 하는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②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당사자 혹은 이해관계인은 위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운영활동가회의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직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본 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 또는 위원이 배제된 경우 해당 사건에 한하여 운영활동가회의가 뽑는 임시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29조(비밀유지)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0조(당사자의 지위에 관한 특칙) ① 위원회는 갈등해결의 취지 및 목적에 따라 사건 당사자의 지위를 사건 발생시를 기준으로 하여 의사결정할 수 있다.

② 사건 발생 당시 빈고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나 특정 지위를 가졌던 사람은 그 이후 해당 자격이나 지위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하거나 물러나는 것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5절 조합원

제31조(조합원의 종류) ① 일반조합원은 특수조합원이나 영구조합원이 아닌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정조합원 :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조합비를 납부하고 출자금 잔액이 1만 빈 이상인 조합원
2. 준조합원 : 정조합원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일반조합원

② 특수조합원은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며, 대리인을 통하여 빈고에 가입하거나 출자, 반환, 탈퇴활동을 할 수 있다. 조합비 납부 의무는 면제된다.

1. 스스로 유효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조합원
2. 비인간 동물 조합원
3. 가입목적상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 조합원

③ 영구조합원은 출자금을 남긴 채로 사망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통해 영구조합원으로 지정된 조합원으로서 의결권이 소멸하고 조합비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조합원은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잔여출자금 및 출자지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빈고에 보전하고 영구조합원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조합원의 활동)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출자 · 이용 · 연대 · 운영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출자 : 조합원은 능력에 따라 빈고에 출자한다.
2. 이용 : 조합원은 필요에 따라 빈고를 이용한다.
3. 연대 : 조합원은 함께하고 싶은 지구촌 곳곳에 기쁘게 연대한다.
4. 운영 : 조합원은 원하는 활동을 통해 빈고의 운영에 재밌게 참여한다.

제33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빈고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은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라 빈고의

의사결정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1. 빈고의 출자, 이용, 연대 및 운영 활동에 참여
2. 운영회의 및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결정에 참여
3. 임시총회 소집요구
4. 빈고 운영활동가, 대표활동가, 책임활동가, 감사활동가에 대한 선거 및 피선거
5. 조합의 업무보고 및 장부의 열람

② 전항의 의결권은 1인1표에 의하며, 빈고는 각 조합원의 의결권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조합원은 빈고의 가치와 정신에 동의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하는 등 실질적인 의결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3. 조합원은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변동사항을 책임활동가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4. 조합원은 재미있게 출자하고, 당당하고 성실하게 이용한다.
5. 조합원은 조합 운영에 관심을 갖고 조합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6. 조합원은 빈고의 정관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제34조(조합비) ① 조합비는 1년에 1만빈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비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년도 조합비는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이 직접 조합비를 낼 수 없는 경우

2. 만 13세 미만의 조합원

3. 일시적으로 조합비를 낼 수 없어 책임활동가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조합비는 빈고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조합비는 조합원의 출자금 계좌에서 일괄적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걷는다.

제35조(조합원의 가입) ① 누구든지 본 정관 및 빈고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는 빈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빈고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출자금을 납입하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빈고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서면으로 책임활동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가입신청을 받은 책임활동가는 가입요건을 검토하여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6조(조합원의 탈퇴) ①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은 탈퇴 30일 전까지 책임활동가에게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탈퇴하고 출자금 및 출자지지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② 탈퇴하는 조합원은 사전에 빈고의 활동을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고, 출자금 및 이용활동금을 성실하게 청산하여야 한다.

③ 출자금 및 이용활동금의 청산에 필요한 경우 책임활동가와 협의하여 적당한 기간과 청산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조합원의 제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총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된 조합원에게는 출자지지금을 제외한 출자금 전액을 반환한다.

1. 조합원이 빈고에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입하거나 활동한 경우
2. 조합원이 빈고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여 정관을 위반하거나 빈고 또는 조합원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빈고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전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는 경우 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명의 대상이 된 조합원에 대해 갈등전환위원회의 결정이 있던 경우 제명에 앞서 이를 참작할 수 있으며, 갈등전환위원회에서 해당 조합원에 대한 사건이 진행중인 경우 그 결과가있기까지판단을미룰수있다.
④ 제2항의 통지가 2회에 걸쳐 반송 또는 거절되거나 주소불명, 연락두절, 의사소통의 불가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제명에 앞서 1년 이상 휴면조치하고 통지내용 등을 빈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이 휴면조치된 경우 해당 기간동안 조합원의 자격이 중지되며, 휴면기간이 만료하여 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은 빈고에 귀속한다.

제3장 활동

제1절 출자활동

제38조(출자활동) ① 빈고의 목적과 이념에 따른 활동으로서 조합원은 출자활동을 한다.
② 조합원은 자본수익을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출자계획에 따라 출자금을

입금한다.
③ 조합원은 1빈 단위로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으며, 잔액이 1만빈 이상일 때 정조합원으로서 의결권을 갖는다.
④ 출자금은 빈고의 자본금으로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⑤ 출자활동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예금방식의 출자는 여유 자금 등을 자유로이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2. 적금방식의 출자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3. 비율방식의 출자는 정기적으로 수입의 일정한 비율을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⑥ 출자금의 반환요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주일 내에 조합원 본인의 타행 계좌로 반환한다.
⑦ 출자금은 조합원의 요청에 따라 타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⑧ 출자금은 조합원의 동의에 따라, 조합비 출금, 공동체회비 출금, 정기 이체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제39조(출자지지금) ① 조합원 출자금에는 신협 예금이율에 이하의 출자지지금이 매년 조합원 앞으로 적립된다.
② 출자지지금은 매년 누적되며, 조합원 탈퇴시에 반환할 수 있다.
③ 출자지지금의 구체적인 적립비율 등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공동체통장) 조합원들이 구성한 공동체는 개인 출자와 별도로 수시로 출자와 반환이 가능한 공동체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제41조(차입) 공유자본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자 이외에 빈고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지지금은 적립되지 않는다.

제42조(선물) 조합원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출자금을 빈고 또는 다른 조합원에게 선물할 수 있다.

제2절 이용활동

제43조(이용활동) ① 출자활동을 통하여 빈고에 모인 돈을 공유하기 위해 이용활동을 한다. 이용활동은 조합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② 이용활동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이용활동계획을 책임활동가와 공유하고, 서로 상의하여 이용활동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운영활동가회의에서 이용활동계획서를 검토하고 확정하면 이용활동을 진행한다.
④ 이용활동가는 한달에 한 번 이용활동 상황을 책임활동가와 공유한다.
⑤ 이용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활동가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이용수입) 이용활동을 통해 얻어진 자본수익의 추정금액을 이용수입이라고 한다. 이용수입은 빈고의 모든 조합원이 협력을 통해 자본으로부터 탈환한 것이다.

제45조(이용분담금) 이용활동가는 이용수입을 사양하고, 이용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빈고에 분담한다.

제46조(이용지지금) ① 빈고는 당기잉여금의 10% 이상을 이용지지금으로 배당하고, 이용활동가에게 분배해서 적립한다. 적립한 금액은 이용활동가의 탈퇴 또는 공동체의 종료 시에 반환된다.
② 이용지지금의 일부를 공동체기금으로 적립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응원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처한공동체를돕는등빈고를이용하는공동체와연대하기위해사용할수있다.

제3절 연대활동

제47조(연대활동) 빈고는 당기잉여금의 10% 이상을 연대활동을 위하여 지구분담금으로 배당하고 적립한다.

제48조(지구분담금) ① 조합원은 각자 연대하고자 하는 공동체, 단체, 주체, 현장 등에 대한 지구분담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구분담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지구분담금을 통한 연대활동에 관한 계획을 빈고에 공유하고 제안하여야 한다.

제4절 사업활동

제49조(사업활동) ① 빈고는 출자, 이용, 연대활동 이외에 필요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50조(사업의 제안) ① 빈고에서 진행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 조합원은 누구든지 사업을 기획하여 빈고에 제안할 수 있다.
② 매년 수행할 사업은 총회에서 결정하고, 담당할 활동가를 정한다.

제51조(사업의 추진)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은 담당 활동가가 해당 회기 동안 총괄하여 추진하고 조합원들과 공유한다.

제52조(적립금) ① 사업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빈고의 수입 일부를 적립한다.
② 적립금의 규모는 빈고의 재정상황에 따라 운영활동가회의에서 정한다.

제53조(교육사업) ① 빈고는 새로운 조합원 및 기존 조합원을 위해 적절한 교육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② 교육활동의 시기 및 절차는 활동가와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54조(활동가기금) 빈고는 활동가들의 활동에 대해 배당하는 활동가기금을 적립하고 활동가들의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재무

제55조(회계연도) 빈고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6조(수입) 빈고의 수입은 조합비, 공동체분담금, 조합원분담금, 사업수입, 이자수입, 선물, 기타수입 등으로 이루어진다.

제57조(지출) 조합의 지출은 빈고의 운영비, 회의비, 활동비, 사업비, 이자비용, 기타비용 등으로 이루어진다.

제58조(예산의 결정과 집행) 빈고의 예산안은 총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운영활동가회의 또는 운영활동가회의를 거쳐 대표활동가가 집행한다.

제59조(잉여금의 처리) ① 매 회계연도가 끝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도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출자지지금, 이용지지금, 지구분담금, 빈고적립금, 활동가기금 등의 항목으로 적립한다.
② 적립항목 및 적립비율 등은 해당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60조(손실금의 처리) ① 손실금의 처리방법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손실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활동가회의에서 논의한다.

제61조(빈고적립금) 빈고는 당기잉여금의 20% 이상을 빈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빈고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빈고적립금은 빈고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용활동 원금을 선물처리하거나 그밖에 빈고의 운영에 필요한 특별한 용도를 위하여 총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정관

제1절 정관의 개정

제62조(정관의 개정) ① 빈고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의결권 있는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활동가회의의 의결과 대표활동가의 승인으로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

1.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개정내용의 성질상 총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2. 이미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정관의 일부분을 개정하는 경우
3. 이미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관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4.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정관의 개정이 불가피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 총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제63조(입안절차) ① 정관의 개정안은 운영활동가회의에서 입안하여 내부논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한다.
② 조합원은 누구든지 정관의 개정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활동가회의는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관계 조합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4조(예고 및 공고) ① 정관을 개정하는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소집통지를 할 때에 정관의 개정안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관이 개정된 경우 그 개정일과 시행일을 포함하여 모든 조합원들이 개정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제2절 정관의 효력

제65조(정관의 적용범위) ① 정관은 빈고 및 빈고의 조합원들에게 적용한다.
② 정관을 위반한 사정에 대하여는 해당 사정이 발생한 시점에 의한다.

제66조(타 규정과의 관계) ① 정관의 규정이 빈고의 각 기관 및 공동체의 내부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상호 존중하여 조화롭게 해석한다. 단, 빈고의 존립목적 및 이념에 반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정관이 우선한다.
②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빈고의 존립목적 및 이념에 비추어 운영활동가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제6장 해산

제67조(해산의 결의) 빈고가 해산하려는 경우 의결권 있는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타 조직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68조(청산인) ① 빈고가 해산한 경우 감사가 청산인이 된다. 이 경우 기존 활동가는 청산인을 도와 청산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빈고의 재산상황을 성실히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잔여재산의 처리) ① 청산결과에 따라 남은 재산은 빈고의 채무에 우선 충당하고, 조합원에게 각자의 출자금과 출자지지금을 반환한다. 그 외의 잔여재산은 지역사회, 빈고와 유사한 다른 단체, 환경단체, 공유지 및 연대단체에 선물한다.
② 잔여재산이 출자금과 출자지지금을 반환하는데 부족한 경우, 출자금과 출자지지금의 합계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반환한다.

부칙

제1조 이 정관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 제정된 때부터 시행한다.

빈고 핸드북

자본을 공유지로 바꾸는 멋진 금융 생활

발행일 2024년 1월 23일
지은이 빈연구소, 빈고
발행인 정훈
발행처 빈고
편집디자인 이파람

빈고 / BINGO / 貧庫
홈페이지 http://bingobank.org
이메일 bingobank.org@gmail.com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금평1길 103-58
전화 010-3058-1968 (빈고폰)
운영시간 월-금 / 아침 10시-저녁 7시

- 나머지 시간에는 문자, 텔레그램으로 연락 남겨주세요.
- 출자활동, 이용활동, 공통계활동 등 입금 확인은 다음 영업일 오전까지 확인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 출자반환, 신규이용 등의 출금 신청은 다음 영업일 오전까지 보내드립니다.

값 5,000빈
구입문의 빈고폰
계좌번호 빈고 010-3058-1968 (기업은행)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생명이 함께 누리고 가꾸며 살아가는 공유지다. 우리는 공유지를 망치는 독점과 수탈과 차별에 반대한다.

우리는 돈이 돈을 버는 자본의 질서에 반대한다.

우리는 자본의 은행에서 벗어나 탈자본의 은행을 함께 만들기 위해 모였다. 우리는 우리의 화폐가 자본이 아닌 공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을 함께한다. 우리는 자본을 위한 저축을 거부하고, 빈고의 공유지에 출자한다.

우리는 자본을 위한 대출을 거부하고, 빈고의 공유지를 이용한다.

우리는 자본수익을 사양해서, 자본에게 빼앗긴 빈고의 외부와 연대하고 환대한다. 우리는 황폐한 공유지나 또 하나의 자본이 되지 않도록, 빈고를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우리는 자본의 원리를 넘어 공유를, 국가의 원리를 넘어 자치를, 가족의 한계를 넘어 환대를 실현하는 공유지, 공동체은행 빈고를 함께 만들어간다.

우리는 공유, 자치, 환대하는 공동체들의 공동체로서, 스스로 공유지가 되어 지속적으로 확장한다.

능력에 따라 출자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한다.

기쁘게 연대하고, 재밌게 운영한다.

〈빈고 정관 전문〉

빈고 조합원 함께해요!

빈고 취지에 동의한다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빈고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종 문의와 상담은 빈고 활동가들이나 빈고폰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조합원으로서 의결권을 가지려면,
출자잔액 1만 빈 이상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매년 조합비 1만 빈이 출자금 계좌에서 자동출금됩니다.

홈페이지에 가입해요!

빈고와 빈고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여러 공동체와 조합원들과 소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빈고의 재정 보고를 매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출자금과 그동안의 출자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빈고의 각종 모임 소식과 읽을거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